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가는 국어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0 시작에 앞서

대상별 활용 방법

앞쪽 문제의 정답을 일단 스스로 어떻게든 결정하세요. 정답 판단 근거까지 스스로에게 설명해보신 후에, 뒤쪽의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풀지도 않아 놓고, 고민도 안 해보고, 스스로에게 설명도 못하면서, 냅다 해설부터 보면서 '음~ 이게 맞지~ 고려치 고려치' 이려고 앉아있으면 본인에게 남는 게 없습니다. **실전과 같이 맞히고 틀려가면서 본인에게 남겨야만, 비로소 내 것이 되고 내 실력이 느는 겁니다.**

중학생·고1

해당 학습 자료로 본인이 고1 국어 '상위권'에 들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50% 이상의 정답률을 보이고, 판단의 근거를 대략적으로나마 '스스로 설명'할 수 있다면, 고등학교 내신·모의고사에서 상위권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풀었는데 거의 다 틀린다거나, 해설이 도대체가 뭘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해설의 용어조차도 생전 처음 본 것이라면, 국어 공부량을 늘리고 공부질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고2

해당 학습 자료를 풀어보며, 본인이 그간 국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꾸준히, 꼼꼼히, 잘, 해왔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100%에 가까운 정답률을 보이고, 이유까지도 얼추 설명해낼 수 있다면 당신은 상위권일 것입니다. 하지만, 개념어가 부족하여 문제를 틀린다든지, 주관식으로 생각해보는 것이 힘들고 어색하다든지, 해설지의 좋은 독해·풀이 습관은 잘 안되고 안 좋은 독해·풀이 습관만 많다든지 등 약점이 보이면, 이를 개선할 것을 목표로 국어 학습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고3·N수

해당 학습 자료로 국어 기초개념 및 기초습관이 잘 잡혀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100%에 가까운 정답률을 보이고, 이유까지도 막힘없이 설명해낼 수 있다면 당신은 수능에서 상위권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간간이 틀리는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설명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해설을 토대로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약점들이 수능 당일 당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으므로, 아니 매우 높은 확률로, 아니 반드시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늘 겸손할 수 있도록, 늘 긴장하고 자극받을 수 있도록, 혹은 내가 잘 해오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문학

진위판단

[지문]

펼 펼 나는 저 피꼬리
암수 서로 정답구나
외로울사 이내 몸은
늬와 함께 돌아갈꼬

- 유리왕, [황조가]

[문제] 진위판단

1. 피꼬리들이 펼 펼 나는 모습은 평온한 시적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 정답 : (참 / 거짓)

2. 시적화자는 암수 서로 정다운 피꼬리들에게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

- 정답 : (참 / 거짓)

3. 시적화자인 '나'는 시적대상인 '피꼬리'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 정답 : (참 / 거짓)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1 문학

정답 및 해설

1. [정답] : 거짓

- 우선, 시적 분위기가 평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적화자는 외롭고, 심지어 암수 서로 정다운 꾀꼬리들이 펄펄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외로움은 심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시적화자의 감정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시적 분위기는 평온하다기보다는 고독하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 + 백번 양보해서, 화자의 감정 자체는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 수 있겠으나, 시적화자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니니 평온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외로워하는 화자 옆에서 꾀꼬리들이 펄펄 날고 (어어 커플것들이 눈치없이 염장을 쳐르고) 있는데, 평온한 시적 분위기가 '강조'될 수는 없겠습니다.

2. [정답] : 참

- 시적화자는 함께 돌아갈 사람이 없는 (벗어 안 나는 솔로) 외로운 인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 꾀꼬리들은 암수가 서로 정다운 (커플 부럽타) 화자가 부러워할만한 한 쌍입니다. 서로의 처지가 다르다 못해 정반대네요. 처지가 반대고, 화자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한탄하고 있기 때문에 시적화자인 '나'가 시적대상인 '꾀꼬리'들에게 거리감을 느끼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 + '거리감을 느낀다'라는 표현은 겉으로 보면 중립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중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거리감을 느끼지 않는다 = 멀지 않음', '거리감을 느낌 = 멀'입니다. 즉, 거리감을 느낀다는 표현 자체에 '이질감' '물리적 혹은 심리적 사이가 많이 멀어보이는' 의미가 들어 있네요.

3. [정답] : 거짓

- 시적화자는 시적대상인 정답게 펄펄 나는 '꾀꼬리'들을 보면서 '혼잣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4행) '누구와 함께 돌아갈 것인가?'도 의문형으로서 누군가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설의적 표현입니다. 즉, '함께 돌아갈 사람이 없으니, 누구와 함께 돌아가려나?', 아마 당장은 함께 돌아갈 사람이 없겠구나.'라는 화자의 생각이 함축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 + 당연하게도, 이 작품의 '필자'는 시적화자의 '혼잣말'을 통해서 '독자'인 우리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적화자가 독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구나~'라고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시적화자는 이 글을 읽는 '독자'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독자는 작품 밖의 전지전능한 신인 필자에게 작품 밖에서 작품 상황을 듣고 있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2 비문학

주관식으로 풀기

[지문] 1번

300m이내의 수심에서 음파는 초당 약 1,500m의 속도로 나아간다.

[문제] 1번 주관식

1. 음파 탐지기가 특정 방향으로 발신한 음파가 0.1초 만에 돌아왔다면, 목표물은 발신 방향으로부터 몇 m 거리에 있을까?

- 정답 :

[지문] 2번

음파의 속도는 물의 온도나 압력에 따라 변화한다. 일반적으로 수온이나 수압이 높아질 경우 속도가 빨라지고, 수온이나 수압이 낮아지면 속도는 느려진다.

미국의 한 연구팀은 미국 서부 해안의 특정 지점에서 발신한 음파가 호주 해안의 특정 지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팀은 수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가 지구 온난화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문제] 2번 주관식

2. 미국 연구팀에서 측정한 결과가 어땠기에, 수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을까?

- 정답 :

※ 2015년 고1 3월 모의고사 20 ~ 23번 비문학 지문 참조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2 비문학

정답 및 해설

1. [정답] : 75m

- $1500\text{m/s} * 0.1\text{s} * 0.5 = 75\text{m}$

- 초당 1500m 속도로 나아가는 음파가 0.1초만에 돌아왔다면, $1500\text{m} * 0.1$ 즉, 150m 거리를 이동한 것이네요. 그런데 음파가 갔다가 돌아온 거리가 150m일테니 목표물은 발신 방향으로부터 그 절반(0.5)인 75m 거리에 위치해 있겠네요.

+ 이건 수학 아니냐구요? 이 정도까지는 이제 수능 국어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적인 연산력, 혹은 숨겨진 변수를 수치화해내어 논리에 반영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합시다. '돌아왔다 = 절반인 0.5' 정도의 수치화, 계량화 능력을 수능 국어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정답]

: 음파 도달 시간이 짧아졌다는 측정 결과를 토대로 위와 같은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수온이 높아져 음파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다.

- 수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면, 음파의 속도도 빨라졌을 것이고, 그렇다면 특정 지점에서 발신한 음파가 특정 지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짧아졌을 것이라는 점을 연결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 도달 시간이 아니라 속도'만' 쓰셨다면 부족한 답안입니다. 문제에서는 연구팀의 측정 결과를 물었기 때문입니다.

+ '수온이 높아졌다'는 말이 바로 '지구 온난화'와 비슷한 의미임을 연결 짓는 동어반복도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3 문법

된소리되기

[지문]

표준발음법 제 27항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된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붙임] ‘-(으)ㄹ’로 시작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문제] 진위판단

1. ‘할 게 없다’의 ‘할 게’와 ‘다음에 볼 기회’의 ‘볼 기회’는 정확히 띄어 읽는다면, 된소리로 발음한다.
- 정답 : (참 / 거짓)
-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3 문법

정답 및 해설

[정답] : 거짓

- ‘할 게’, ‘볼 기회’를 한 단위로 발음하는 경우, 즉 붙여서 발음하는 경우에는 표준발음법 제27항에 따라 [할께] [볼끼회]로 발음합니다. 그러나 출제자는, ‘정확히 띄어 읽는다면’이라는 출제 요소를 추가하여 반대 적 사고를 해볼 것, 즉 응용력을 발휘해볼 것을 요구했습니다. 붙여서 발음하는 경우에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만, 띄어 읽는다면, 심지어 ‘정확하게’ 띄어 읽는다면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낼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 + ‘된소리되기’의 기초 개념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다루고 넘어가기는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공부 꽤나 열심히 한 학생들조차도, ‘띄어쓰기를 하더라도, 된소리되기는 적용될 수 있다’정도 까지만 공부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들어보지도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것일지라도, 출제자가 ‘정확히’라는 부사어까지 써가며 평소와 다르다는 티를 팍팍 내고 있음을 느껴야 합니다. 정답의 확신성은 좀 떨어졌을 수 있으나, 적어도 참은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하여 정답만큼은 맞춰내셨기를 바랍니다. 잘 모르는 문제일지라도, 일단은 맞춰서 점수는 받아내고, 추후에 꼼꼼히 다시 공부하여 지식까지 늘리는 멋진 학생이 됩시다.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4 비문학

진위판단

[지문]

식물이 가진 옥신이라는 화학 물질은 줄기의 맨 윗부분에서 만들어진다. 옥신은 빛을 쏘이면 빛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며, 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 PIN단백질이라는 것을 통해 주로 줄기에서 뿌리 쪽으로 이동한다.

[문제] 진위판단

1. 식물에 빛을 쏘이지 않으면, 옥신은 줄기에서 뿌리 반대쪽으로 이동한다.

- 정답 : (참 / 거짓)

※ 2016년 고2 3월 모의고사 27 ~ 30번 비문학 지문 참조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4 비문학

정답 및 해설

[정답] : 거짓

- '본문에 빛을 쪼이면 옥신이 아래쪽(뿌리 방향)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빛을 안 쪼이면 뿌리 반대쪽인 위쪽(꽃봉오리 방향)으로 가겠지?' 정말 조심해야할 안 좋은 사고 습관입니다. 안 쪼이면 안 움직일 것이라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출제자는 출제요소가 마치 '위-아래' 대립인 것처럼 수험생들을 속이려고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짜 출제 요소는 '움직인다 - 안 움직인다'입니다. '전제'까지 놓치지 않아야 한다, '포함관계'에 유의해야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면 끓일 때 면부터 넣을까, 스프부터 넣을까?'라는 질문에 '우선 물부터 넣어야겠지?'라고 대답할 줄 아는 지혜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 관련해서 아래 영상도 참조해보시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화 '고래 퀴즈' 장면] https://www.youtube.com/shorts/894rG_BImwM

"몸무게가 22톤인 암컷 향고래가 500kg에 달하는 대왕오징어를 먹고 6시간 뒤 1.3톤짜리 알을 낳았다면 이 암컷 향고래의 몸무게는 얼마일까요? 정답은 '고래는 알을 낳을 수 없다'입니다. 고래는 포유류라 알이 아닌 새끼를 낳으니까요. 무게에만 초점을 맞추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핵심을 봐야 돼요."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가는 국어

#5 문학

진위판단, 동어반복 연습

[지문]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햇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 이성부, [벼]

[문제] 진위판단

1. 시적 대상의 공동체적 속성이 드러난다.

- 정답 : (참 / 거짓)

2. 시적 화자는 순응적 태도를 보인다.

- 정답 : (참 / 거짓)

3. 시적 대상에 인격이 부여되어 있다.

- 정답 : (참 / 거짓)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5 문학

정답 및 해설

1. [정답] : 참

-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 시적 대상인 '벼'들의 '공동체적' 속성(지문-선택지 동어반복)

2. [정답] : 거짓

- 시적 화자는 시적 대상인 '벼'를 관조적 자세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립적으로 본다면, '벼'의 공동체적 특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벼'를 본받고자 하는(=본문 '보아라') 화자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벼에 대한 예찬적 태도마저도 느껴집니다. '벼'를 닮고자 하는 의지적 태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순응적 태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 + 간혹 시적 대상인 '벼'가 '기대고 산다'는 어휘에만 집착하여 '벼'가 '의존적' 태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혼자서는 저항 못하는 현실에 순응하여 다른 벼들에게 의존한다는 식의 논리인데요. 우선 **시적 화자와 시적 대상을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리화시켰더라도 시적 대상인 '벼'와 벼를 바라보는 '시적 화자'는 엄연히 다릅니다. 시적 화자에게서 순응적 태도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 ++ 또한 시어의 의미를 해석할 때는 나무인 '어휘'뿐만 아니라, 숲인 '상황 맥락'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시어 '햇살'은 어휘 자체만 좁게 보면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시적 대상인 '벼'를 '따갑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상황 맥락에 비추어 봤을 때 '햇살'은 부정적 존재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햇살을 견디기 위해 벼는 '어우러져 기대고 살아서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햇살에 순응적 태도를 보인다고 보다는, 저항적 태도를 보인다고 해석하셨기를 바랍니다.

3. [정답] : 참

- 자연물인 벼가 '스스로를 아끼고', 같은 자연물인 다른 벼들을 '이웃들'로 상정하여 '자신을 맡기는' 등 마치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의인법이네요(지문-선택지 동어반복)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6 문법

음절의 끝소리 규칙&연음

[지문]

표준발음법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표준발음법 제9항

받침 ‘ㄱ ㅋ’, ‘ㅅ ㅆ ㅈ ㅊ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표준발음법 제13항

출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표준발음법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문제] 진위판단

1. ‘헛웃음’은 제13항 제15항에 따라 [허두숨]으로 발음한다.

- 정답 : (참 /거짓)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6 문법

정답 및 해설

[정답] : 찰

- 제13항이 아니라 제9항에 따라 찰이므로, 거짓이라고 판단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헛’의 받침 ㅅ은 ㄷ으로 바꾸어서 발음하고, 뒤 대충 연음한다고 생각하신 것이겠죠. 두 가지 실수를 동시에 하면 이런 잘못된 결론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제대로 해냈어도 틀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 가지를 그 순간에 놓쳐서 틀리는 것은 불운의 영역일 수 있겠으나, 두 개를 동시에 놓친 것은 부족한 실력 때문입니다. 반성합시다.
- 첫째, 표준발음법의 제9항이 순서상 앞에 있다고 무턱대고 먼저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즉, 조항을 먼저 보고 거기에 선택지를 끼워 맞추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선택지에 제시된 단어를 ‘쪼개서 원형파악’하는 것입니다.(물론, 선택지로 넘어가기 전에 조항을 찬찬히 한번 훑어보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겠죠. 선택지를 보고 그 진위를 판단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둘째, ‘쪼개서 원형파악’이 아주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막힘없이 되어야 합니다. ‘헛+웃음’으로 쪼개고 끝내는 것으로는 이제 부족합니다. 2023학년도 수능 국어 ‘언어와 매체’ 영역 문법 문제들을 토대로 파악된 수능 트렌드는 매우매우매우 디테일한 쪼개서 원형파악입니다. ‘헛’은 접두사, ‘웃음’은 동사의 어간 ‘웃’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음’이 붙어서 만들어진 ‘명사’, 즉 실질형태소. 이렇게 쪼개서 원형파악을 정확하게, 그리고 한 치의 막힘이나 버벅임 없이 빠르게 되었는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 하면,
‘웃’의 출발침 ㅅ이 모음 ‘ㅡ’로 시작된 (명사 파생) 접미사 ‘음’과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 ㅅ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제 13항.
‘헛’의 받침 ㅅ 뒤에 모음 ‘ㅜ’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 명사 ‘웃음’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 ㄷ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제 15항.
- + “표준발음법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가 들어가지 않았으니 틀리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제 8항, 제 13항, 제 15항’ 3개에 따라 발음된다고 했어야 완벽하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말이 잘못되었다,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분들의 주장이 맞으며 더 우월하다는 사실이, ‘제 13항, 제 15항’에 따라 발음된다는 위 진술이 틀린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생각이 맞아 보이고 더 우월해 보인다고 해서, 나와 반대되는 생각 혹은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생각이 반드시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안 좋은 사고 습관입니다. 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안국어

#7 멘토링

조금만 더

도망쳐서 숨는 곳에 천국은 없다

(이지영 tr)

그저 꾸준하게만 해도
남들보다 잘할 수 있게 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의외로 세상은요,
당신보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뀌어나가는 경우가 많답니다.

(스티브 잡스)

당신이 귀찮다며 어색하다며 힘들다며 포기한 그 일을,
그 사람들은 그저 묵묵히 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러니 하기 싫다고, 잘 안된다고,
도망치지 마세요.

지옥을 견딜 인내력과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도망쳐서 숨어봤자 거기에 천국이 없더라고요

지금 당신을 괴롭게 하는 그 상황을,
조금만 더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지옥에서조차도 살아남을 실력을 길러야만,
비로소 지옥을 영원히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8 비문학

주관식으로 풀기, 진위판단

[지문]

과학자들이 단백질과 DNA 중 어느 것이 생명의 정보를 지닌 유전 물질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을 당시인 1952년 허시와 체이스는 바이러스 감염 실험을 통해서 유전 물질이 무엇인지를 밝혀냈다. 허시와 체이스는 먼저 생명체의 DNA에는 인(P)이, 단백질에는 황(S)이 들어있다는 점에 착안해 DNA의 인(P)과 단백질의 황(S)을 각각 방사성 동위 원소인 인(^{32}P)과 황(^{35}S)으로 대체한 후, 이들을 포함시킨 바이러스를 대장균에 감염시켰다. 그리고 이들을 여러 세대에 걸쳐 배양한 뒤, 배양된 대장균의 내부에 어떤 방사성 동위 원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DNA가 유전 물질인 것을 밝혀냈다.

[문제] 주관식, 진위판단

1. 배양된 대장균의 내부에 어떤 방사성 동위 원소가 남아 있었을까?

- 정답 :

2. 당시 과학자들은 DNA의 구조와 복제 과정을 알고 있었다.

- 정답 : (참 / 거짓)

※ 2016년 고1 3월 모의고사 16 ~ 19번 비문학 지문 참조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8 비문학

정답 및 해설

1. [정답] : 배양된 대장균 내부에는 결과적으로 황(^{35}S)은 없고, 인(^{32}P)만 관찰되었을 것

- DNA에 인(P)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DNA가 유전 물질이라고 밝혀졌다면, 인(^{32}P)이 유전되어 대장균 내부에서 관찰된 것이겠죠.
- 이에 더해 황(^{35}S)은 남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황(^{35}S) '도' 관찰되었다면, 단백질 '도' 유전 물질이라고 했겠죠.

+ [지문]을 읽으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문제 보러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출제자가 어떤 방사성 동위원소가 남아 있는지 몰랐을까요? 당연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고 넘어간 것은, 선택지에서 문제로 출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두루뭉술한 서술은 **철저하게 의도된 불친절**이라는 걸 눈치채야 합니다. 주관식으로 풀기. **문제를 읽고 나서야 사후에 정답을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읽기도 전에 지문 읽으면서 사전에 생각해내어 주관식으로 풀어버리는 것.** 좋은 독해 습관입니다.

2. [정답] : 거짓

- 첫 번째 문장을 통해 거짓으로 추론 가능합니다. DNA의 구조와 '복제' 과정을 알고 있었다면,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겠죠. DNA의 구조와 복제 과정을 모르니까 단백질과 DNA 중 어느 것이 유전 물질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9 문학

결과 속, 나무와 숲

[지문]

“빌려만 주신다면 무슨 짓을, 정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반드시 갚는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그는 마치 성경책 위에다 오른손을 얹고 말하듯이 엄숙한 표정을 했다. 하마터면 나는 잇을 뻔했다. 그가 적시에 일깨워 주었기 망정이지 안 그랬더라면 빌려주는 어려움에만 골몰한 나머지 빌려줬다 나중에 돌려받는 어려움이 더 클 거라는 사실은 생각도 못할 뻔했다. 그렇다. 끼니조차 감당 못하는 주제에 막벌이 아니면 어쩌다 간간이 얻어걸리는 출판사 싸구려 번역 일 가지고 어느 하가에 빚을 갚을 것인가.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 그리고 기왕 피할 바엔 저쪽에서 감히 두 말을 못하도록 야멸치게 굴 필요가 있었다.

“병원 이름이 뭐죠?”

“원산부인입니다”

“지금 내 형편에 현금은 어렵군요. 원장한테 바로 전화 걸어서 내가 보증을 서마고 약속할 테니까 권선생도 다시 한 번 매달려 보세요. 의사도 사람인데 설마 사람을 생으로 죽게야 하겠습니까. 달리 변통할 구멍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해보세요.”

내 대답이 지나치게 더디 나올 때 이미 눈치를 챈 모양이었다. 도전적이던 기색이 슬그머니 죽으면서 그의 착하디착한 눈에 다시 수줍음이 돌아왔다. 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보였다.

- 윤흥길, [아홉컬레 구두로 남은 사내]

[문제] 진위판단 *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아래 설명의 참/거짓을 판단해보세요.

1. ‘나’는 권 씨를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해 미안해하는 선량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정답 : (참 / 거짓)

※ 2016학년도 수능 B형 홀수형 31~33번 참조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9 문학

정답 및 해설

1. [정답] : 거짓

- 권 씨의 부탁은 돈을 빌려 달라는 것입니다. '나'가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권 씨를 도왔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형식적(전화 보증 약속)으로나마 도움을 주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하는 본인 역시도 이것이 해결책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다수론, 70%)
- + 다만, '원장한테 바로 전화 걸어서 내가 보증을 서마고 약속할 테니까'라고 얘기했으니, '나'가 권 씨를 도와주지 않으려 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작은 도움(돈 대신 전화 보증 약속)이라고 해서 도움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을 엄밀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작은 도움도 도움은 도움이죠(소수론, 30%)
- 다수론에 입각하여 '단순 사실 판단'으로 (응~~안~~도왔어) 이 문제를 빠르게 맞히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시험 순간에 '다수론'이 먼저 떠오를지, '소수론'이 먼저 떠오를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미안해하는 선량한 인물'에 대한 진위판단까지 해서 정답의 확신성을 높이셨기를 바랍니다. 해당 장면에서 '나'가 권 씨에게 '미안함'을 느낀다고 판단할 만한 표현이 지문에 없습니다.
- + '부탁을 거절하는데 당연히 미안한 감정은 있겠죠. 사람인데~'라는 것은 뇌피셜입니다. '미안함' '선량함'이라는 선택지의 표현과 연결할 수 있는 지문의 표현을 근거로 들 수 있어야 합니다(선택지-지문 동어반복, 나무) 찾으시면 알려주세요.
- ++ [아홉 켄레 구두로 남은 사내]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알고 있는 분이라면, 이후에 '나'가 결국 돈을 구해 권 씨를 도와준다는 것이 떠올랐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전 지식'을 토대로, 밑줄 친 부분부터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고, '나'는 선량한 인물이라고 합리화시켰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석은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미안함' '선량함'이라는 선택지의 표현과 연결할 수 있는 지문의 표현을 근거로 들 수 있어야 합니다(선택지-지문 동어반복) 찾으시면 알려주세요.
- +++ 밑줄의 앞뒤 상황(숲)까지 생각해봅시다. 권 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함. 그러나 '나'는 권 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후 돌려받기 힘들다고 판단함. 그러므로 '나'는 권 씨의 부탁을 '야멸치게' 거절하고자 함. '지금 내 형편에 현금은 어렵군요.'라고 말해 부탁을 거절함. 다만, '나'는 형식적인 도움(전화 보증 약속) 정도라도 주겠다는 표현을 덧붙여 권 씨에게 작은 도움까지만 주고자 함. 혹은 도움을 아예 주지 않으려 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피하고자 함(미안해하고 선량해서라기보다는 미래에 원한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정도?) 물론 이 중 어떤 것일지 지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조차도 뇌피셜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미안해하는 선량한 사람과는 거리가 멀다는 느낌은 받으셔야 합니다.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10 문법

쪼개서 원형파악

[지문]

동생의 비상금을 우연히 발견하였다

[문제] 쪼개서 원형파악

- 위 문장을 본인의 모든 문법지식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디테일하게 쪼개서 원형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장의 짜임, 문장성분, 품사, 형태소 단위** 등으로도 쪼개보시기 바랍니다.

1. 문장의 짜임
2. 문장 성분
3. 품사-형태소
4. 단어의 개수, 어절의 개수, 음절의 개수, 음운의 개수
5. 실질형태소 개수, 형식형태소 개수, 자립형태소 개수, 의존형태소 개수

※ 2016년 고2 3월 모의고사 14번 문법 지문 참조

※ 2023학년도 수능국어 언어와 매체 영역의 문법 출제경향을 생각해보는다면, 다음과 같은 디테일한 ‘쪼개서 원형파악’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제요소와 관련된 문법 용어들이 막힘없이 떠오를 정도로 암기하고, 문법 개념어를 활용한 쪼개서 원형파악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문학’ ‘문학’ ‘매체’ 영역에서는 다를 수 있으나, ‘문법’ 영역에서만은 사고력뿐 아니라 ‘암기력’까지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정확하면서도 ‘막힘없이’ 풀 수 있습니다. 문법 영역을 다 맞추는 건 당연한 것이나, 막힘없이 다 맞추어야만 고난도 비문학 영역에서 ‘사고력’을 발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10 문법

정답 및 해설

동생의 비상금을 우연히 발견하였다

1. 문장의 짜임 - 흘문장

2. 문장 성분

- (내가) ~의 ~을 어떻게 ~하였다.
- (주어) **관형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 + 필수성분 주어 '내가'는 해당 문장의 발화자이므로 생략

3. 품사-형태소

- 동생 : **보통명사**
- 의 : **관형격조사** -> '동생의'가 관형어 역할
- 비상금 : 명사 어근 '비상'과 **★접미사 '금'★**으로 이루어진 **파생명사**
- 을 : **목적격조사** -> '비상금을'이 목적어 역할
- 우연히 : 명사 '우연'에 **형용사파생접미사 '-하'**가 붙어서 형용사 '우연하다'가 된 후, 형용사의 어간 '우연하-'에 **부사파생접미사 '-이or히(경쟁중)'**가 붙어 부사가 됨. 부사 '우연히'가 부사어 역할
- 발견하였다 : 명사 '발견', **동사 파생 접미사 '하다'**,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 '었'**, **어말어미 '다'**

+ '**었**'은 **형태론적 이형태**. 이형태를 음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 형태소 '하-'와 결합할 때, 연결어미 '-아/-어/-아서/-어서/'가 나타나야 할 자리에, '-여/여서'가 쓰임.

++ 음운론적 이형태 : 앞말의 받침(음운) 유무에 따라 '이/가' '을/를'이 음운론적 이형태를 띠다든지, 앞말의 모음(음운)이 양성모음인지 음성모음인지(모음조화)에 따라 '-아,-어' '-아서,-어서' '-았,-었-', '-아라, -어라' 등이 음운론적 이형태를 띠다든지.

4. 단어·어절·음절·음운의 개수

- 단어의 개수 **6개** : 조사도 단어입니다 + (***파생명사 단어의 개수를 1개로 봄**)
- 어절의 개수 **4개** : 띄어쓰기 단위, 음절의 개수 **15개**
- 음운의 개수 **34개** : 모음 앞의 첫음절 ㅇ은 음운의 개수에 포함안함 + (***이중모음 ㄴ, ㄹ의 음운의 개수를 1개로 봄**)

5. 실질·형식·자립·의존 형태소의 개수

- 실질 **4개**, 형식 **7개**, 자립 **4개**, 의존 **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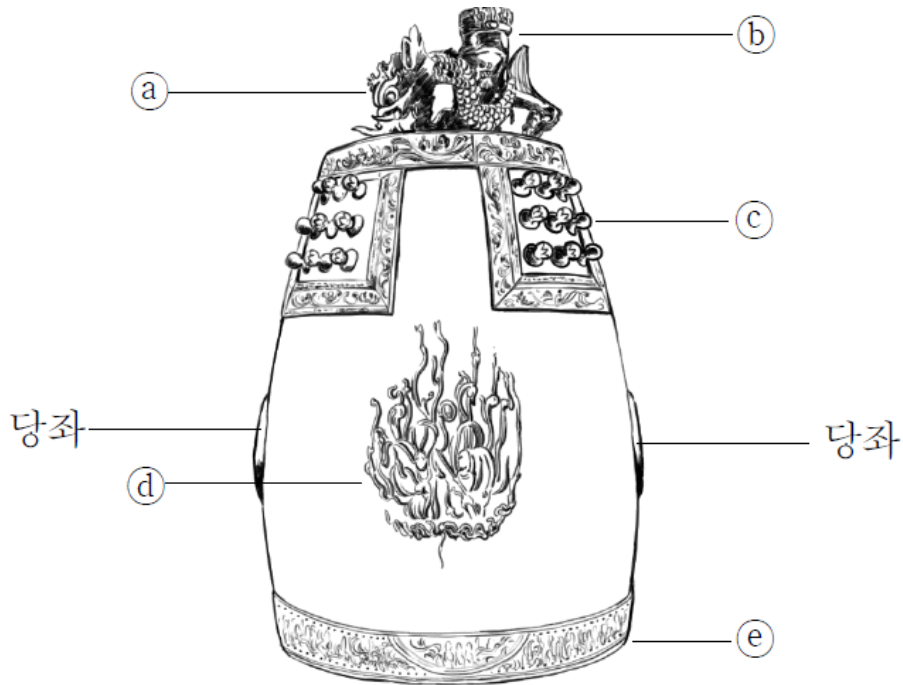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11 비문학

지문-[그림] 동어반복, 진위판단, '달리'진술 푸는 법

[지문]

아래 [그림]은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범종이다. 범종에서 가장 볼록하게 튀어나온 종의 정점부에는 타종 부위인 당좌가 있으며, 이 당좌 사이에는 '천인상'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어 가로 세로의 띠만 있는 일본 종과 차이가 있다.



[문제] 진위판단

1. 일본 종은 신라 종과 달리 ㉠의 주변에 가로 세로의 띠가 있다.

- 정답 : (참 / 거짓)

※ 2017년 고1 3월 모의고사 24 ~ 26번 비문학 지문 참조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11 비문학

정답 및 해설

[정답] : 거짓

- 지문 독해 시에, 지문의 '당좌' 부분을 읽으며 [그림]의 '당좌' 부분과 연결짓는 동어반복을 하기

+ 좋은 독해 습관 : 지문 내용과 [그림]을 연결지어가며 읽어 지문 이해도를 높이기

- '천인상'이 @인가 보네요. 당좌 사이에 있다고 하니까요

+ 좋은 독해 습관 : 지문 내용과 [그림]을 연결지어가며 읽어 지문 이해도를 높이기

- 일본 종은 가로 세로의 띠'만' 있다고 하니 @가 없다는 것이겠군요.

+ 좋은 독해 습관 : 극단적·한정적·단정적 표현이 나오면 '꼭' 체크해두고 넘어가기

+ 당좌가 뭘지 알 바입니까(쓰레빠입니까)? 지문 앞뒤 내용 몰라도 됩니다. 심지어 '범종'이 뭘지 이번에 생애 처음 들어봤어도 상관없습니다. '종 그거 뭐 치면 소리 나는~~~ 컵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긴거 그거 아냐?' 정도, 위에 그림같이 생긴게 종이라는 걸 아는 정도의 기초 상식. 대한민국 남녀노소가 다 알고 있는 그 정도 기초상식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 심지어, 이 정도의 기초 상식조차 없어도, 지문에서 가장 불룩하게 튀어나온 것, [그림]에서 친절히 당좌라고 2번이나 표시해준 것. '아 저게 당좌이고, 저걸 쳐서(타종) 소리나게 하는건가보다' 정도만이라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 '~와' 달리 문제 푸는 법 : 해체

- '달리' 선택지를 3개 진술로 해체하여 순서대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①번 진술 : 일본 종은 ㉔의 주변에 가로 세로의 띠가 있다 : 거짓, 일본 종은 ㉔ 자체가 없다

-> ①번 진술부터 틀린 진술이므로, 전체 진술도 틀린 진술. 이후 진술은 판단 중지하고 넘어가 시간 아끼기

+ 만약 ①번 진술이 맞다고 가정하면,

②번 진술 : 신라 종은 ㉔의 주변에 가로 세로의 띠가 있다

-> ①번 진술이 참이고, ②번 진술이 거짓이면, ③번 진술 '달리'가 맞으므로 선택지는 참

-> ①번 진술이 참이고, ②번 진술도 참이면, ③번 진술 '달리'가 틀리므로 선택지는 거짓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가는 국어

#12 문학

진위판단

[지문]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懷疑)를 구(救)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愛憎)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 번 뜬 백일(白日)이 불사신같이 작열(灼熱)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永劫)의 허적(虛寂)에
오직 알라의 신(神)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熱沙)의 끝.

그 열렬한 고독(孤獨)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호올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沙丘)에 회한(悔恨)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 유치환 [생명의 서]

[문제] 진위판단

1. 시적 화자는 이상향에 대해 동경적 태도를 보인다.
- 정답 : (참 / 거짓)
2. 시적 화자는 자신에 대해 성찰적 태도를 보인다.
- 정답 : (참 / 거짓)
3. 시적 화자는 자신의 현실에 대해 비관적 태도를 보이며, 이는 현실 도피적 태도로 이어진다.
- 정답 : (참 / 거짓)

※ 1994년 수능 참조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12 문학

정답 및 해설

1. [정답] : 거짓?

- (다수설) '아라비아 사막'은 백일이 불사신같이 작열하고, 모든 것들이 모래 속에서 죽어가고, 화자도 죽어서 백골이 되는 것까지 각오하는 공간인데 어떻게 이상향이냐. 이상향 자체가 아니다. 백번 양보해서 이상향이라고 해도 '아라비아 사막'을 동경해서 가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가는거다.
- + (소수설) 열렬한 고독 가운데 운명처럼 '나'와 대면하게 해주는 '아라비아 사막'은 내가 진짜 '나' 자신, '원시 본연의 자태'를 만나게 해주는 공간, 내 바람을 이뤄주는 공간이니 내겐 이상향이다. 심지어 알라의 신같은 초월자도 있는 곳인데? (그리고 나에게 이상향이라면 이를 동경하는 건 당연하지 않냐? 동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상향인가? 그래서 가자며? 갔다며? 가서 원하는 걸 얻는다며?)

2. [정답] : 참

-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 낄 때 ~ 사막으로 나는 가자'
= 자신이 여태 쌓아온 지식들이 자신의 삶에, 혹은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회의감. 자신의 삶에서 사랑하는 혹은 증오하는 것들이 자신에게 주는 부담을 견디지 못함. 병들고 괴로워서 먼 사막으로 가고자 함.
- '그 원시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 백골을 쪼이리라.'
= 사막에서 죽음에 가까운 경험을 하고 나니까 비로소 '진정한 나(=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만날 수 있게 됨.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할 것라면 그냥 사막에서 죽어도 좋다고 함.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자 현실을 떠났고, 실제로 진정한 나 자신을 성찰. 성찰적 태도 맞네요. (지문-선택지 동어반복)

3. [정답] : 거짓?

- (다수설) 화자는 '사막'이라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 생명의 본질을 찾으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자신의 현실을 비판하거나 이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 + (소수설) 1연에서 화자는 자신을 '병든 나무'에 비유하고, 자신의 현실이 부대끼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 아님? 그래서 결국 현실에서 '먼 아라비아 사막'으로 도피하는데? 의지적 태도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말 현실 비판적 태도, 현실 도피적 태도가 1도 없다고 확신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것도 시험 현장에서 수험생들이 말입니다.

★ 1번 3번 진위판단에 대해 '응 무조건 거짓이야~'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갔다면 반성합시다. 위 문제의 숨겨진 출제 요소는 '충돌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좀 애매할 수 있는 진술에 대해서는 일단 '판단 보류'하고, '가장 확실한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선택지를 단 하나의 정답으로 찍기'였습니다. 위 3개의 진위판단 문제 중에 가장 '참'일 것 같은 진술을 고른다면, 애매함이 '가장 없는' 진술인 2번을 고르는 것이 맞습니다. 1번, 3번 진위판단은 참(소수설)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인 부분(다수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정답은 잘 맞추시되, '무조건 거짓'(다수설)이라고 뭉개버리기에는 애매한 면(소수설)이 있다는 걸 공부해둡시다.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13 문법

쪼개서 원형파악

[지문]

그녀가 많이 먹음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문제] 쪼개서 원형파악

- 위 문장을 본인의 모든 문법지식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디테일하게 쪼개서 원형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장의 짜임, 문장성분, 품사, 형태소 단위 등으로도 쪼개보시기 바랍니다.

1. 문장의 짜임 분석
2. 품사·형태소 분석을 바탕으로 한 문장성분 분석
3. 단어·어절·음절의·음운의 개수
4. 실질·형식·자립·의존 형태소의 개수

※ 2016년 고2 3월 모의고사 12번 문법 지문 참조

※ 23학년도 수능 문법의 핵심 출제경향은 바로 '쪼개서 원형파악'입니다. 다음과 같은 디테일한 '쪼개서 원형파악'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제요소와 관련된 문법 용어들이 막힘없이 떠오를 정도로 암기하고, 문법 개념어를 활용한 쪼개서 원형파악 훈련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비문학' '문학' '매체' 등 다른 영역에서는 다를 수 있겠으나, '문법' 영역에서만큼은 사고력뿐 아니라 '암기력'까지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정확하면서도 '막힘없이' 풀 수 있습니다. 문법 영역을 다 맞추는 건 당연한 것이나, 막힘없이 풀어서 다 맞추어야만 고난도 비문학 영역에서 '사고력'을 발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13 문법

정답 및 해설

[정답] 그녀가 많이 먹음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1. 문장의 짜임 분석

- ~음은 ~일이 아니다 : 주어-보어-서술어로 이루어진 안은문장
- ① 그녀가 많이 먹다 : 명사절로 쓰여 안은문장의 주어 역할로 안긴문장
- ② 일이 새삼스럽다 : 관형절로 쓰여 안은문장의 관형어 역할로 안긴문장

2. 품사-형태소 분석을 바탕으로 한 문장성분 분석

① ‘그녀가 많이 먹다.’라는 안긴문장에서,

- 그녀 : 삼인칭 대명사

- 가 : 주격조사로 대명사(품사) ‘그녀’가 안긴문장의 주어(문장 성분)역할을 하게 해줌.

- 많이 : 형용사 ‘많다’의 어간 ‘많-’에 부사파생접미사 ‘-이’가 붙어서 부사 ‘많이’가 됨. 형용사 ‘많-’이 아닌 부사(품사) ‘많이’가 안긴문장에서 부사어(문장 성분) 역할을 함.

+ ‘-이’는 부사파생접미사로 봅니다. ‘많이’가 사전에 부사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근 뒤에 붙어서 어근의 품사를 바꾸고(파생), 파생된 단어가 사전에 따로 등재되는 경우에는 파생접미사로 봅니다. 물론, 형용사 ‘많다’의 어간에 붙었으므로 전성어미라고 보는 견해와 경쟁했던 시절도 있으므로, 아직 직접적인 출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부사파생접미사로 일단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 먹음 : 동사 ‘먹다’의 어간 ‘먹-’이 명사형 전성어미 ‘-음’을 만나 명사형으로 쓰임.

+ ‘먹음’은 서술성이 있고, 부사어 ‘많이’의 수식을 받고, ‘먹음’이 사전에 동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 ‘동사’의 명사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명사형 전성어미 ‘-음’이 쓰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처럼 ‘명사형 전성어미’인지 ‘명사파생접미사’인지를 구분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 4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결론을 내리시면 정답의 확신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사전에 따로 등재되어 있으면 파생접미사,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전성어미

★ 관형어의 수식을 받으면 체언이니 명사파생접미사, 부사어의 수식을 받으면 용언이니 명사형전성어미

★ 이외에도 ‘서술성이 있는지’ ‘용언의 어간에 붙었는지, 용언의 어간이 아닌 다른 어근에 붙었는지’

- 은 : 보조사로 ‘은’으로, ‘먹음’ 뒤에 붙어 안긴문장이 안은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도록 함

② '일이 새삼스럽다.'라는 안긴문장에서,

- 부사 '새삼'에 형용사파생접미사 '-스럽'이 붙어서 형용사가 된 '새삼스럽다'의 어간 '새삼스럽-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으)ㄴ'이 붙어 안은문장의 관형어 역할로 안겨있다.
- + 어간 '새삼스럽-'의 받침 ㅂ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전성어미)와 만나, 반모음 ㄴ로 바뀌는 **브블 규칙활용**
- + '일이'라고 하는 안긴문장의 주어와, 안긴문장의 수식을 받는 안은문장의 보어 '일이'가 **중복되어 생략**

3. 단어·어절·음절의·음운 개수

- 단어의 개수 : 9개 (조사는 단어)
- 어절의 개수 : 6개 (띄어쓰기 단위)
- 음절의 개수 : 18개(글자 수)

- 음운의 개수 : 37개
- + 음운의 개수 셀 때 주의할 점
 - ★ 이중모음 : 음운 개수 1개 = 반모음을 모음으로 인정 안함 (vs 인정하면 2개)
 - ★ 겹자음 : 음운 개수 2개 (vs 된소리 : ㄱ, ㄷ, ㅃ, ㅆ, ㅈ는 음운 개수 1개)
 - ★ 음절의 첫소리에 오는 ㅇ은 음가없는 ㅇ이므로 음운의 개수로 세지 않음

4. 실질·형식·자립·의존 형태소 개수

- 실질 형태소 6개
- 형식 형태소 8개
- 자립 형태소 3개
- 의존 형태소 11개

- + 형태소 셀 때 주의할 점
 - ★ 실질 형태소 :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동사·형용사의 어간 = 어휘 형태소)
 - ★ 형식 형태소 : 접사, 조사, 어미 (= 문법 형태소)
 - ★ 자립 형태소 :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 ★ 의존 형태소 : 동사·형용사의 어간, 조사, 어미, 접사

- 보지 않고도 위 해설처럼 막힘없이 될 때까지, 5번이고 10번이고 반복하다 보면 큰 발전이 있을 겁니다. -

#14 비문학

진위판단, 지문-선택지 동어반복

[지문] 1번

진행자 : 그럼, 최 교수님께서서는 동전 없는 사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 교수 : 물론 동전을 없애면 동전의 제조와 유통 등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의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990원 짜리 상품이 1000원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 진위판단

1. 최 교수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자가 언급한 내용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정답 : (참 / 거짓)

[지문] 2번

진행자 : 동전을 없애면 불편을 겪을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최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최 교수 : 당연히 불편을 겪을 사람들이 있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카드에 거스름돈을 충전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여전히 불편할 것입니다.

[문제] 진위판단

2. 최 교수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자가 언급한 내용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정답 : (참 / 거짓)

※ 2017년 고2 3월 모의고사 1~3번 화법 지문 참조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14 비문학

정답 및 해설

1. [정답] : 참

-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선택지)
: '물론 동전을 없애면 동전의 제조와 유통 등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지문)
- 진행자가 언급한 내용(선택지)
: '동전 없는 사회'(지문)
-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선택지)
: '물가 상승의 우려가 있습니다.'(지문)

2. [정답] : 거짓

-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선택지)
: '제가 알고 있기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카드에 거스름돈을 충전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지문)
- 진행자가 언급한 내용(선택지)
: '동전을 없애면 불편을 겪을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지문)
-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선택지)
vs 기존 문제 해결 안됨 :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여전히 불편'(지문)
+ '새로운 문제 야기'가 지문에 없는 진술입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하면 틀린 것이다.**

+ 느낌만으로 선택지 진술의 참, 거짓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 느낌의 '근거'를 댈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는 역시나 '지문'의 표현이겠죠. 이렇게 지문-선택지에 나와 있는 표현에서 그 의미는 같으나 표현만 다른 것들을 연결 짓는 동어반복으로 정답의 확실성을 높여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느낌은 들 수밖에 없습디만, 그 느낌의 근거를 찾아보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똑같은 선택지일지라도, 위에처럼 지문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15 멘토링

진위판단

[지문]

우리 동아리에서는 봄맞이 문학 기행으로 영월 청령포에 다녀왔다. 청령포는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를 가 비운의 삶을 마치게 되었다.

[문제] 진위판단

1.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을 고려하여 '마쳤다'로 고친다.

- 정답 : (참 / 거짓)

※ 2017년 고2 3월 모의고사 6~8번 작문 지문 참조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15 멘토링

정답 및 해설

[정답] : 거짓

- 앞 문장에 '청령포에 다녀왔다.'라고 했으므로, 청령포는 '장소'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마치게 되었다.'를 '마친 곳이다.'로 고쳐야 맞는 진술입니다.
- 고쳐쓰기를 한 결과물도 이전처럼 잘못되었다면 틀린 진술입니다. 고치면 뭐합니까? 잘못 고쳤으면 틀린 겁니다.

★ '행동했는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행동해서 제대로 된 결과값을 냈는지'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상대방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본다고들 하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합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은, 특히나 '법'을 좀 아는 사람들은, 겉으로 행동까지는 하면서도 결과는 제대로 나오지 않도록 의도하기도 합니다. '나는 결과값을 내지는 못한 조금 부족한 사람일지언정, 행동하지 않은 나쁜 사람은 결코 아니다.' 라는 논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한두 번 정도까지야 불운으로, 상황적 어려움으로 결과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행동은 곧잘 하는데 결과값이 계속해서 안 나온다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까지도 고려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 결과값 : 한자어 '결과'와 순우리말 '값'로 이루어진 합성어로 앞말(결과)이 모음(ㅏ)으로 끝나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ㄱ]로 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가는 국어

#16 문학

동어반복

[지문]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욱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 운동주, [참회록]

[문제] 동어반복 *아래에 제시된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을 지문에서 찾아 연결해 보세요.

1. 자조적 태도
 2. 성찰적 태도
 3. 회고적 태도
 4. 반성적 태도
 5. 의지적 태도
-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16 문학

정답 및 해설

[정답]

1. 자조적 태도

- 1연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 이다지도 **욕될까**'
- + '설의적 표현'입니다. 욕되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욕되다는 것을 알고서도 이를 강조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되묻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성찰적 태도 :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는 태도

- 2연 '**참회**'
- + 참회 2. (懺悔) (명사) 부끄러워하여 뉘우침.
- + 참회 3. (懺悔) (명사)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깨닫고 깊이 뉘우침.

- 5연 슬픔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3. 회고적 태도 :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태도

- 2연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 3연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런 고백을 했던가**'

4. 반성적 태도

- 3연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런 고백을 했던가**'

5. 의지적 태도

- 2연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 3연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한다**'
- 4연 '밤이면 밤마다 ~ **뉘아 보자**' + 밤이면 밤마다(매일 반복)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17 문법

쪼개서 원형파악

[지문]

1. 첫사랑
2. 새파랗게
3. 걸었다
4. 사랑스러워 보이다

[문제] 쪼개서 원형파악

- 위 단어들을 품사 및 형태소 단위 등 본인의 모든 문법지식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디테일하게 쪼개서 원형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 2023학년도 수능국어 언어와 매체 영역의 문법 출제경향을 생각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디테일한 '쪼개서 원형파악'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제요소와 관련된 문법 용어들이 막힘없이 떠오를 정도로 암기하고, 문법 개념어를 활용한 쪼개서 원형파악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문학' '문학' '매체' 영역에서는 다를 수 있으나, '문법' 영역에서만큼은 사고력뿐 아니라 '암기력'까지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정확하면서도 '막힘없이' 풀 수 있습니다. 문법 영역을 다 맞추는 건 당연한 것이나, 막힘없이 다 맞추어야만 고난도 비문학 영역에서 '사고력'을 발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17 문법

정답 및 해설

1. 첫사랑 : 합성명사

- 첫 : 관형사 = 실질·자립형태소, 어근
- 사랑 : 보통명사 = 실질·자립형태소, 어근

2. 새파랗게 : 형용사 '새파랗다'의 부사형

- 새- : 접두사
 - + '매우 짙고 선명하게'라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입니다. 영어 new라는 의미로 쓰인다면 관형사지만, 영어 very로 쓰였을 때는 접두사로 알아둡시다.
- 파랗- : 형용사 어간
- -게 : 부사형 전성어미
 - + 부사파생접미사 '게'는 없으며, '새파랗게'가 사전에서 부사로 등재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부사형 전성어미입니다.

3. 걸었다 : 동사

- 걸- : 동사 '걷다'의 어간 '걸'
- 었 :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 -다 : 어말어미, 종결어미
- + 걸->걸 : ㄷ불규칙 활용(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끝 ㄷ이 ㄹ로 바뀌는 어간 불규칙 활용)

4. 사랑스러워 보인다 : '본용언 + 본용언'으로 이루어진 동사구

- 사랑 : 명사
- -스럽- : 형용사 파생 접미사 -> '사랑스럽다' : 형용사
- -어 : 본용언-본용언을 이어주는 연결어미(문장 구성에 따라 대등적or종속적 연결어미가 될 수 있음)
 - + 동사 '보이다'를 꾸며주는 '부사어'로 '사랑스러워'를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형용사 사랑스럽다에 '부사형 전성어미'가 붙었다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 보 : 동사 '보다'의 어간
- 이 : 피동접미사(형식·의존형태소)
- 다 : 어말어미, 종결어미
- + 슨어 -> 스러워 : ㄷ불규칙 활용, 형용사 '사랑스럽다'의 어간 '사랑스럽'의 끝 'ㄷ'받침이 연결어미의 모어 '-어' 앞에서 받모음 'ㄴ'로 바뀌는 어간 불규칙 활용

#18 비문학

진위판단

[지문]

조세는 국가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 주체인 기업과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돈이다.

조세의 공평성은 조세 부과와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조세의 공평성이 확보되면 조세 부과와 형평성이 높아져서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편익 원칙과 능력 원칙이 있다.

이중 능력 원칙은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고려한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으로 조세를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능력 원칙은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으로 나뉜다. 수직적 공평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특정 세금을 내야 하는 모든 납세자에게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나 소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점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를 시행하기도 한다.

수평적 공평은 소득이나 재산이 같을 경우 세금도 같게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수치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동일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세 부담 능력이 달라, 내야 하는 세금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부양가족의 수가 다르면 실질적인 조세 부담 능력에 차이가 생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공제 제도를 통해 조세 부담 능력이 적은 사람의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한다.

[문제] 진위판단

1. 소득이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부여해 버린다면, 조세 부과와 형평성은 약화될 수 있다.
- 정답 : (참 / 거짓)
2.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납부액이 큰 건, 소득이 높은 만큼 공공재를 많이 사용했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 정답 : (참 / 거짓)
3. 누진세 적용은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
- 정답 : (참 / 거짓)

※ 2018년 고1 3월 모의고사 31 ~ 33번 비문학 지문 참조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18 비문학

정답 및 해설

1. [정답] : 거짓?

- 출제자가 '~인 경우에만 혜택 부여', '~해 버린다면' 등의 표현을 활용하여 앞 진술에 부정적 어감을 심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뒤 진술에도 역시 부정적 어감인 '악화'를 넣었죠. 여기에 '~될 수 있다'는 겸손한 표현까지 집어넣었네요.

-> 이런 출제자의 표현 및 출제 노하우로 인해, 수험생들은 '부정적 행동을 해버리면, 부정적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매우 그럴 듯하고 당연해 보이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자체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느낌'에 흔들리지 않고 아래와 같은 '비례-반비례 관계 동어반복' '선택지-지문 동어반복' '지문-지문 동어반복'을 통해 '근거를 갖춘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 혜택 부여(선택지) -> 실질적인 조세 부담 능력 고려(4문단) -> 수평적 공평 고려(4문단) -> 능력 원칙 고려(3문단) -> 조세의 공평성 확보(2문단) -> 조세 부과 형평성 **강화**(2문단) (다수론)

+ 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조세 부과 형평성을 강화시키는 공제 제도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다. 내가 알기로 많이 있다 기부자 공제라든지(배경지식) 그런데 그 많은 공제 제도 가운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혜택을 부여하고 다른 경우에는 공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다면, 공제 혜택을 여러 개 부여하다가 한 개 부여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조세 부과 공평성은 오히려 악화될 수 있으므로 참이다. (소수론)

-> 위와 같은 논리로 참이라고 판단한 경우라면 인정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논리를 쓰지 않았는데 참이라고 판단했다면 틀린 겁니다. 위 2가지 논리 모두 배워둡시다.

2. [정답] : 거짓

- 없는 것을 있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소득이 높은 만큼 공공재를 많이 사용했다는 얘기가 지문 자체에 없습니다.

- '높다 -> 크다 -> 많다'라는 비례 관계에 낫이지 마세요. '높으면 크고 크면 많겠거니'하면서 순진하게 낫이시면 안 됩니다.

3. [정답] : 참

- 누진세 시행 -> 수직적 공평 실현(3문단) -> 능력 원칙 적용(3문단) -> 공평성 확보(2문단) -> 조세 저항 감소 가능(2문단)

#19 문학

진위판단, 숲과 나무

[지문]

①그러자 윗구역에서, 또 그 윗구역에서 여깃말 할 줄 아는 조선 사람들이 내려왔다. 동리에서도 조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타났다. 창권은 눈이 찌지게 놀랐다. 윗구역에서 내려오는 조선 사람 하나가 팽이를 둘러메고 여기 토민들 몰켜선 데로 뭐라고 여깃말로 호통을 치면서 그냥 닥치는 대로 찍으려 덤벼드는 것이다. 몰켜 섰던 토민들은 와 흠어져 버린다. 창권을 둘러쌌던 패들도 슬금슬금 물러선다. 동리에서는 조선 부인네들 몇은 식칼을 들고, 낫을 들고 달려들 나오는 것이다. 낫과 식칼을 보더니 토민들은 제각기 사방으로 흠어져 달아난다. 창권은 사지가 부르르 떨렸다.

‘여기선 저력해야 사나 부다! 아니, 이 붓도랑은 우리 목줄이 아니고 뭐냐!’

아까 등덜미를 맞고, 멍살을 잡히고 한 분통이 와락 터진다.

②다리 오금이 날갯죽지처럼 뻗는다.

“덤벼라! 우린 여기서 못 살면 죽긴 마찬가지다!”

달아나는 녀석 하나를 다우쳤다. 뒷덜미를 낚아챘다. 공중걸이로 나가떨어진다. 또 하나 쫓아가는데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난다.

- 이태준, [농군]

[문제] 진위판단

1. 밑줄 ①은 유사한 문장을 반복하였다.

정답 : (참 / 거짓)

2. 밑줄 ②는 직유법을 사용하여 ‘창권’이 느낀 두려움을 생생하게 표현하였다.

정답 : (참 / 거짓)

※ 2017년 고1 3월 모의고사 34 ~ 37번 문학 지문 참조

#19 문학

정답 및 해설

1. [정답] : 참

- 아래 4가지 표현 별로, 정답의 확신성도 달라지고, 참·거짓 역시 달라집니다. 고작 몇 글자 씩 바꾸었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절대적 표현과 상대적 표현을 엄밀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유사(상대적 표현) vs 동일(절대적 표현)
문장 구조(상대적 표현) vs 문장(절대적 표현)

ex) '동일'한 문장 반복 : 정답의 확신성이 매우 높게, 거짓

ex) '동일'한 문장 '구조' 반복 : 정답의 확신성이 떨어지지만, 거짓?

= '~에서 조선 사람들이 ~했다. ~에서도 조선 사람들이 ~했다.' 이정도면 동일...? 아 '도'가 있으니까 애매~한가? 일단 판단 보류하고, 세모치고 넘어가자“(제 3의 길, 맞다 틀리다 단정짓지 말고 일단 넘어가서 더 확실한 정답 찾기, 현실적 풀이 사고)

ex) '유사'한 문장 반복 : 정답의 확신성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참

ex)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 : 정답의 확신성이 매우 높게 참

2. [정답] : 거짓

- 나무(밑줄) : '오금이 뻘어? 췌았네 어거~ 두려움 생생~~하네. ~처럼 직유 옳지~ 참드카자~(XXXXXXXXXX)

- 숲(상황) : 밑줄 앞뒤 맥락(숲)까지 생각해보면, 창권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의 정반대나 다름없는 '용기'를 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밑줄은 용기를 내기 직전 상황에서 창권이 느끼는 '전율'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 밑줄②번 이전에 창권은 지금 '여기선' '저력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선' : 패들에게 둘러싸여 있는(지문-지문 동어반복)

'저력해야' : 조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깡이·식칼·낫을 들고 토민 패들에게 달려드는

+ 밑줄②번 이후에 창권 역시 조선 사람들처럼 달려들어 달아나는 녀석 하나를 다우치고 뒷덜미를 낚아채고 쫓아가네요.

★ '밤(Night)'는 그저 부정적인 것이고, 밤하늘의 '별'은 무조건 꿈이어야만 하고, '비둘기'만 보면 평화부터 떠올리나요? 나무(표현)'만' 보지 말고 숲(상황 맥락)'까지' 다 보셔야 합니다. 나무 중요하죠. 중요한데요, 나무'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숲'도 정말 중요합니다. 숲과 나무 둘 다 잘 파악하는 좋은 독해 습관을 가진 멋진 사람이 됩시다.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20 문법

쪼개서 원형파악

[지문]

이것은 새로운 글이다.

이것은 새 글이다.

그는 빠르게 달린다.

그는 빨리 달린다.

[문제] 쪼개서 원형파악

- 밑줄 친 단어들을 문장성분 단위, 품사 단위, 형태소 단위로 쪼개서 원형파악해보고 표 채워보기

	문장성분	품사	형태소
새로운			
새			
빠르게			
빨리			

※ 2017년 고2 3월 모의고사 12번 문법 문제 참조

※ 2023학년도 수능국어 언어와 매체 영역의 문법 출제경향을 생각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디테일한 '쪼개서 원형파악'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제요소와 관련된 문법 용어들이 막힘없이 떠오를 정도로 암기하고, 문법 개념어를 활용한 쪼개서 원형파악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문학' '문학' '매체' 영역에서는 다를 수 있으나, '문법' 영역에서만큼은 사고력뿐 아니라 '암기력'까지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정확하면서도 '막힘없이' 풀 수 있습니다. 문법 영역을 다 맞추는 건 당연한 것이나, 막힘없이 다 맞추어야만 고난도 비문학 영역에서 '사고력'을 발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20 문법

정답 및 해설

[정답]

	문장성분	품사	형태소
새로운	관형어	형용사 '새롭다'의 어간 '새롭-'	실질 의존
		관형형 전성어미 '-(으)ㄴ' + 보불규칙 활용	형식 의존
새	관형어	관형사 '새'	실질 자립
빠르게	부사어	형용사 '빠르다'의 어간 '빠르-'	실질 의존
		부사형 전성어미 '-게'	형식 의존
빨리	부사어	부사 '빨리'	실질 자립

- 출제자의 의도는 '빨리'를 부사까지만 파악해서 **문장성분이 같더라도 품사는 다를 수 있다**는 지식, **결과 속이 다른 것에 주의하라**는 지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정답 및 해설 역시 이에 맞춰 '빨리'를 부사 단위까지만 원형파악 했습니다. 다만, 더 쪼개서 원형파악 해보려면 할 수도 있죠.

+ 형용사 '빠르다'의 어간 '빠르-'에 부사파생접미사 '이'가 붙어서 부사 '빨리'가 됨.

++ **'르' 불규칙 활용** : 형용사 '빠르다'의 어간의 끝음절 '르'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인 부사파생접미사 '이' 앞에서 '르르'로 바뀌는 활용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21 비문학

지문-지문 동어반복, 주관식으로 풀기

[지문]

절에서 시간을 알리거나 의식을 행할 때 쓰이는 종을 범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범종의 전형적인 조형 양식은 신라에서 완성되었다. 신라에서는 독창적이고 섬세한 조형 양식을 지닌 대형 종을 주조하였는데, 이는 중국이나 일본의 주조 공법으로는 만들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러한 신라 종의 조형 양식은 조선 초기를 기점으로 한 큰 변화가 나타나기 전까지 후대의 범종으로 계승되었다.

고려 시대에는 범종이 소형화되어 신라 종의 조형 양식이 계승되면서도 그러한 조형 양식을 지닌 대형 종의 주조 공법은 사라지게 된다. 조선 초기에는 새 왕조를 연 왕실 주도로 다시 대형 종이 주조된다. 이때 조선에서는 신라의 대형 종 주조 공법을 대신하여 중국 종의 주조 공법을 도입하게 된다. 이후 불교를 억제하는 정책에 따라 한동안 범종 제작이 통제되었고, 16세기에 사찰 주도로 소형 종이 주조되면서 사라졌던 신라 종의 조형 양식이 다시 나타난다.

[문제] 주관식

1.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 정답 :

※ 2017년 고1 3월 모의고사 24 ~ 26번 비문학 지문 참조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21 비문학

정답 및 해설

[정답]

: 중국 종의 구조 공법으로 대형 종을 만들면서 중국 종의 조형 양식을 따르게 되었기 때문

- 출제자가 '큰 변화'가 나타났다는 정보는 던졌으나, 왜 변화가 일어났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바로 진술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제 표현으로는, 출제자가 애매하고 중립적으로 표현하고 스리슬쩍 은근슬쩍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때, 해당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았는데 떠오르지 않는다면 위치라도 기억해두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문 다음 부분을 읽으며 위와 관련된 정보가 나오면 연결해 다시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 좋은 독해 습관 : 지문-지문 동어반복 중 강해져서 돌아오기, 한번 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멈춰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일단 표시해두고 넘어가기.

- '이후 조선 초기에는 새 왕조를 연 왕실 주도로 다시 대형 종이 구조된다. 이때 조선에서는 신라의 대형 종 구조 공법을 대신하여 중국 종의 구조 공법을 도입하게 된다.'라는 문장을 읽으면서 '아~ 중국 종 도입해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지문-지문 동어반복)

- 위의 답안에 더해서 '고려 시대에 대형 종 구조 공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를 추가하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정답을 얘기 안 하고 이것만 얘기하면 점수를 다 받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정답인 내용을 일단 답안으로 먼저 쓰고 이후에 첨언하는 것이 서술형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습관입니다.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22 멘토링

쫄개서 원형파악, 결과 속

[지문]

우리말에서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합성 명사를 이룰 때, 뒤 어근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거나 두 어근 사이에 'ㄴ'이 첨가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표준발음법의 규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㉓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허용하되, 사이시옷을 [ㄷ]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 앞 어근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 뒤 어근의 첫소리가 안울림 예사소리이면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과 관련된 규정

㉔ 사이시옷 뒤에 'ㄴ, ㄹ'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ㅇ' 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ㄴ]으로 발음한다.

- 앞 어근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 어근이 'ㄴ, ㄹ'으로 시작되면 앞 어근의 끝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되는 현상, 혹은 앞 어근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 어근이 모음 'ㅇ'나 반모음 'ㅇ'로 시작되면 앞 어근의 끝소리와 뒤 어근의 첫소리에 각각 'ㄴ'이 첨가되는 현상과 관련된 규정

[문제] 진위판단

1. '웃깃'은 합성 명사이고,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므로 의 ㉓의 예로 볼 수 있다.

- 정답 : (참 / 거짓)

※ 2018년 고2 3월 모의고사 12번 문법 지문 참조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22 멘토링

정답 및 해설

[정답] : 거짓

- 정답을 정하기 전에 우선, 쪼개서 원형파악을 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옷깃’을 쪼개서 ‘원형’을 파악해보면, ‘옷’+깃이죠. 원형이 ‘오’가 아니라 cloth를 의미하는 ‘옷’이기 때문에 받침은 사이시옷이 아닙니다.
 - 쪼개서 ‘원형’을 파악해보았는데 받침이 없다면, 사이시옷이 쓰인 것은 아닌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빨랫돌’ : 쪼개서 원형파악 해보면 ‘빨래’ + 돌, ‘뱃머리’ : 쪼개서 원형파악 해보면 ‘배’ + 머리
 - + 겉과 속이 다른 것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출제자들은 겉모습은 사이시옷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사이시옷이 아닌 것들을 항상 출제요소로 삼습니다. 학생들은 겉모습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다가 함정에 잘 빠지기 때문이죠. 겉만 보고 선부르게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굳이 신중하자 신중하자 매번 되내이지 않아도 항상 신중해질 수 있는 좋은 습관이 바로 ‘쪼개서 원형파악’입니다. 쪼개서 원형파악을 수도 없이 반복하다보면, 그리고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남들보다 더 꼼꼼해지고 더 신중해질 수 있습니다.
-

★ 인생의 좋은 습관 : 쪼개서 원형파악 ★

결국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진 사람이 수능에서, 나아가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국어 문법 거 뭐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3일에 한 번씩 난리냐. 거 뭐 오타 좀 내고 살아도 별 탈 없더라. 오타 지적하는 놈이 사회 부적응자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도 요새 나오죠. 그런데 말입니다. 국어 문법을 이렇게 고생하며 공부한 학생들만이, 쪼개서 원형파악이라는 좋은 습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요. 앞으로 대학 가서 다른 분야를 공부할 때에도, 상대방의 설득 근거 및 논리를 들을 때에도, 계약서 한 장을 쓸 때에도, 그 진가를 발휘하더라구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 의도가 다름을 잘 파악하는 눈치, 밥알 개수 같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는 꼼꼼함,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보는 통찰력, 이러한 고차원적 능력의 가장 핵심적인 토대가 바로 쪼개서 원형파악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쪼개 보려고 해보세요. 그렇게 쪼개다 보면 전에는 존재조차 몰랐던 것들의 존재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더는 쪼갤 수 없다구요? 그럴리가요. 그건 아직 우리의 지식이 미천해서, 혹은 기술이 그만큼 발전하지 못해서 못 쪼개고 있는 것뿐입니다. 가히 쪼갬 속에서 가치가 창출되는 세상입니다. 과거부터 잘 쪼개온 사람이 성공해왔고, 지금 이 순간도 더 잘 쪼개는 사람이 이기고 있으며, 미래 역시 잘 쪼개는 사람의 것이 될 겁니다. 쪼개서 원형파악. 문법 공부 좀만 해도 덤으로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인생무기입니다.

#23 문학

진위판단, 숲과 나무 그리고 산

[지문]

1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2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3 ㉔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
이른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포로수용소의 제 14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4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㉕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무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5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6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때문에 10원때문에 1원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7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나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작으나
정말 얼마큼 작으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 김수영

[문제] 진위판단

1. 밑줄㉔에서 화자는 과거의 자신을 비판적으로 보는 자기반성적 태도를 보인다.

정답 : (참 / 거짓)

2. 밑줄㉕에서 화자는 일상의 소재를 사용하여 자유를 억압하는 시대에 대한 순응적 태도를 보인다.

정답 : (참 / 거짓)

#23 문학

정답 및 해설

1. [정답] : 참

- 선택지 : 과거의 자신 = 지문 : '나의 전통' (선택지-지문 동어반복)
- 선택지 : 비판적 = 지문 '옹졸한'(선택지-지문 동어반복) -> 자기반성적 태도(선택지-선택지 동어반복)

2. [정답] : 거짓?

- 선택지 : 일상의 소재 = 지문 : '개의 울음소리' (선택지-지문 동어반복)

- 숲 : 밀줄 앞 상황을 보면요. 화자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스편지 만들기, 거즈 접기' 등 소시민적 삶과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시대같이 거창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밀줄 뒤 상황을 보면요. 개의 울음소리 말고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도) 진다'고 합니다. 앞뒤 상황에 비춰보자면, 화자는 가히 세상 그 어떤 것들이 와도 다 지는 매우 무기력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파리가 붙어서 계속 기어 다니는 데도 몸을 흔들어서 떼어낼 힘조차 없고, 그럴 생각도 없는 그런 힘없는 상태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다수론)

★ 나무(밀줄) vs 숲(주변 상황 맥락) vs 산(주제의식)

- 나무 : '야 개잖아. '개'는 권력의 하수인을 뜻하잖아. 권력의 하수인이니까 자유 억압하는 거고, 거기에 진다고 하니까 순응 참이지!' 이거 소수론 아니고 오만방자한 생각입니다. 개는 무조건 권력의 하수인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 소재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 생각(권력의 하수인)이 맞다고 해서 다른 생각(일상적 소재)이 틀리다고 해서 안됩니다.
- 산 : '이 시의 주제의식 중에 하나가 (언론) 자유 억압 등 큰 부조리에는 저항하지 못하고 순응하는 자신에 대한 반성적 태도도 있다. 이거 틀릴 수가 없다. 으덜 '태산'같은 주제의식을 거스르려고 해?'(소수론)
 - + 예..... 주제의식(산)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4연의 상황(숲)에서는 해당 주제의식이 잘 드러나 보이지 않아서(다수론) 애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수능이라면, 고소까지 간다면, '참'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수능은 보통 나무-숲-산 3가지가 완벽히 맞아 떨어지는 확실히 맞는 진술이 정답이거나, 3가지가 완벽하게 어긋난 확실히 틀린 진술이 정답입니다. 뭔가 맞으면서도 애매한 부분이 있는 진술은 결코 정답은 아닙니다. 이럴 때는 이 선택지보다 더 적절한 다른 선택지를 찾아서 그걸 일단 답으로 찍어 점수는 받으셔야 합니다.(현실적 풀이 사고, 3길 : '애매'한 진술에는 판단 보류하고 '가장' 적절한 정답인 것 단 한 개를 찍기)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24 작문

진위판단

[지문] 천문학·우주 탐구 동아리 '별바라기' 지원서 작성 방법

- 동아리 지원 동기나 활동 각오를 적어주세요.
- 별자리나 우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비유의 방식으로 표현해 주세요.

[문제] 다음 2개 지원서가 작성 방법에 따라 잘 작성되었는지 진위판단

1. 동아리 '별바라기'는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의 활력소입니다. 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정답 : (참 / 거짓)

2. 밤하늘에 빛나는 별자리는 보석처럼 아름답습니다. '별바라기'에서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남기는 별밤지가 될게요.

- 정답 : (참 / 거짓)

※ 2019년 고1 3월 모의고사 4~7번 작문 화법과 작문 지문 참조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24 작문

정답 및 해설

1. [정답] : 거짓

- '별바라기'는 '활력소'다(선택지) = 은유법 = 비유(지문), 선택지-지문 동어반복
- 열심히 활동(선택지) = 활동 각오(지문), 선택지-지문 동어반복

-> 이렇게 하고 참 찍으시면 틀립니다. '비유 썼으니 맞네. 동어반복 깔끔하네.'라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별자리나 우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비유로 표현해야 합니다. 서술어의 주체와 대상을 엄밀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활력소입니다'라는 서술어의 주어는 동아리 '별바라기'이고, 이건 별자리나 우주가 아니죠.

2. [정답] : 참

- 별자리는 보석'처럼' 아름답다 = 직유법 = 비유(지문), 선택지-지문 동어반복
- 별밤지기가 될게요(선택지) = 활동 각오(지문), 선택지-지문 동어반복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25 문법

쪼개서 원형파악

[지문]

1. 이슬비
2. 부슬비
3. 햇보리
4. 굳세다

[문제] 쪼개서 원형파악

- 위 단어들을 품사·형태소 단위, 어근·접사 등 본인의 모든 문법지식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디테일하게 쪼개서 원형파악해보시고, 단일어인지 파생어인지 통사적 합성어인지 비통사적 합성어인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2023학년도 수능국어 언어와 매체 영역의 문법 출제경향을 생각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디테일한 '쪼개서 원형파악'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제요소와 관련된 문법 용어들이 막힘없이 떠오를 정도로 암기하고, 문법 개념어를 활용한 쪼개서 원형파악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문학' '문학' '매체' 영역에서는 다를 수 있으나, '문법' 영역에서만큼은 사고력뿐 아니라 '암기력'까지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정확하면서도 '막힘없이' 풀 수 있습니다. 문법 영역을 다 맞추는 건 당연한 것이나, 막힘없이 다 맞추어야만 고난도 비문학 영역에서 '사고력'을 발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25 문법

정답 및 해설

1. 이슬/비 : **통사적 합성명사** (명사+명사)

- 이슬 : 명사 어근
- 비 : 명사 어근

2. 부슬/비 : **비통사적 합성명사** (관형사가 아닌 비자립적 어근이 명사 수식)

- **부슬** : **부사** '부슬부슬', 동사 '부슬거리다' 등에서 보았을 '부슬'은 비자립적 어근입니다. 부슬은 체언도 관형사도 용언도 아니므로, 통사 구성 방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 비 : 명사 어근 '비'

3. 햇/보리 : **파생명사** (접두사+어근)

- 햇- : 여기서 '해'는 태양(Sun)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명사 '해'의 의미에서 멀어진 듯 보입니다. '그해에 난'의 뜻을 가진 접두사입니다. 접사인지 어근인지 헷갈릴 때는 본뜻으로 쓰였는지 멀어져서 다른 뜻으로 쓰였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어로 번역해보세요. 좀 더 직관적으로 파악이 될 겁니다. 국어에서 왜 영어쓰냐구요? 정답의 확신성을 높일 수 있다면 원들 못쓰겠습니까? 다 쓰세요. 국어 잘 하고 싶으면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파어탕
- 보리 : 명사 어근 '보리'

4. 굳/세/다 : **비통사적 합성형용사** (용언과 용언이 연결어미 없이 어간끼리 바로 결합)

- 굳- : 형용사 '굳다'의 어간
- -세 : 형용사 '세다'의 어간
- 다 : 종결어미

★ 학교나 학원에서 선생님이 이거 단일어나, 합성어나, 파생어나 물어봤을 때, '합성어요' 정도 대답하고 마는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때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라고 대답하는 그 학생이 무서운, 대단한 학생입니다. 이 대답 하나만으로도, 나는 공부를 아주 꼼꼼히 제대로 하는 학생이라고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을 다수 앞에서 직접 말하기 위해서는 정말 문법 공부를 꼼꼼하게 잘 해야겠지요. 그런 멋진, 이겨도 압도적으로 이기는 학생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26 비문학

주관식으로 풀기, 확장적 사고, 반대적 사고

[지문]

지대는 토지를 빌려주고 얻는 대가를 말한다. 지대의 개념과 성격에 관한 논의는 고전경제학파의 리카도로부터 이론적으로 정교화되기 시작했다. 그의 차액지대론은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령, 어떤 나라의 A, B, C 지역에 쌀 생산에만 쓰이는 토지가 있는데 그 비옥도에 차이가 있어 각 지역 토지에서의 쌀 한 가마당 생산비가 5만 원, 6만 원, 8만 원이라고 하자. 여기서 생산비는 투입한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로, 쌀의 가격은 생산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이 나라의 쌀 수요량이 적어서 A 지역 토지의 일부만 경작해도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때 전국의 쌀 한 가마당 가격은 A 지역 토지에서의 쌀 생산비인 5만 원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쌀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면 어느 순간 A 지역 토지들로 모자라 B 지역 토지도 경작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때 B 지역 토지를, 경작되는 토지 가운데 가장 열악한 땅이라는 의미에서 한계지라 부른다. B지역 토지가 한계지가 되면 전국의 쌀 한 가마당 가격은 6만원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A 지역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들은 5만 원을 들여 6만 원을 벌 수 있어 쌀 한 가마당 1만 원의 소득을 추가로 얻게 된다. 이 소득은 사람들로 하여금 A 지역 토지를 이용하려는 경쟁을 유발하고 지주에게 땅을 빌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더 높은 지대를 제시하게 함으로써, 지대는 결국 기존의 A 지역 토지 경작자들의 추가 소득인 1만 원으로 결정될 것이다. 쌀 수요량이 더 늘어나서 C 지역 토지가 한계지가 되면 ㉠A 지역 토지의 지대는 더 오르고, B 지역 토지에도 지대가 형성된다. 결국 쌀의 가격은 한계지에서의 쌀 생산비가 되고, 한계지보다 비옥도가 높은 토지들의 지대는 그 토지에서의 쌀 생산비와 한계지에서의 쌀 생산비의 차액이 되는 것이므로, 더 열악한 땅이 한계지가 될수록 쌀 가격은 오르고 그에 따라 지대도 오르게 된다. 이와 같이 리카도는 지대를, 토지 생산물의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나머지, 즉 잉여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지대를 토지 생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이 아니라 토지 생산물의 가격이 오름으로써 얻게 되는 불로 소득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한편, 갑국은 곡물 수급의 일부를 수입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주변국과의 분쟁으로 인해 곡물 수입이 완전히 끊김으로써 곡물의 공급이 부족해졌고 그로 인해 그동안 쓰지 않던 척박한 땅까지 경작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곡물 가격과 기존 경작지의 지대가 크게 올랐다. 이후 주변국과의 분쟁이 해결되자 곡물 수입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을은 '곡물 수입을 막아야 한다. 그 이유는 갑국의 지대가 비싸서 곡물의 가격이 높으므로 곡물 수입을 재개하면 경쟁력이 없는 갑국의 농업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리카도는 자신의 '차액지대론'에 입각하여 '갑국의 농업은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곡물 수입이 재개하면 곡물의 가격은 원래 수준으로 떨어지고 ㉡그 손해는 지주들에게만 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맞섰다.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가는 국어

#26 비문학

주관식으로 풀기, 확장적 사고, 반대적 사고

[문제]

1. ㉠의 결과, A 지역 토지의 지대와 B 지역 토지의 지대는 각각 얼마씩 증가할까?

- 정답 :

2. ㉡의 이유는 무엇일까?

- 정답 :

※ 2018년 고2 3월 모의고사 33 ~ 37번 비문학 지문 참조
+ 2023학년도 수능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4~17번 이중차분법 지문 참조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26 비문학

정답 및 해설

1. [정답] : A 지역 토지의 지대는 2만원 더 올라 3만원이 되고, B 지역 토지의 지대 역시 2만원 올라 2만원이 된다.

* 그냥 A 3만원, B 2만원이라고만 말하면 틀립니다. 문제는 상대적인 증가량을 물은 것이지 절대적인 최종 지대가격을 물은 것이 아니니까요. 정답을 아는데도, 출제자가 의도한 대로 완벽히 풀었는데도, 문제 조건을 놓쳐서 점수 못 받으면 정말 억울하죠. 서술형에서도 키워드 잘 썼는데 조건 놓쳐서 틀리면 바로 한 등급 내려가는 겁니다. 늘 문제 조건을 잘 확인하는 좋은 습관을 들입시다.

- 사실 이 문제네요. 문제1의 존재조차 몰랐어도, 지문을 읽다가 밑줄에서 멈추고 밑줄을 스스로 풀어보고 넘어갔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출제자가 앞에서 AB 2개 토지를 가지고 지대 상승의 과정을 설명해줬잖아요. 밑줄은 이걸 ABC 3개 토지에 확장 적용해보라는 것 같구요. 출제자가 3개 토지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밑줄처럼 '땅값 오르겠지~'하고 두루뭉술하게 설명하고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문제로 내려고, 계산하는 문제로 내려고 철저하게 의도하고 어물쩍 넘어간 것입니다. 이 경우 지문 읽다가 멈추고 밑줄에서 A 지역 토지 지대는 얼마나 올라갔으며, B지역 토지에는 얼마의 지대가 형성되었을지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좋은 독해 습관 : 출제자가 애매하게 대충 설명하고 넘어간 표현의 의미를 정확하고 엄밀하게 따져보기. 한번 해보고 안되면 넘어가기) 자, 해봅시다.

-> 우선, A 토지 1개만 사용하다가 AB 토지 2개를 사용했을 경우에 지대가 형성되는 원리를 이해해보아야 합니다. B지역이 한계지가 되면, 쌀 한가마니 당 가격은 6만원이 된답니다. A 지역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들은 5만 원을 들여 6만 원을 벌 수 있게 되니 쌀 한 가마당 1만 원의 소득을 추가로 얻겠네요. 이 추가 소득을 얻기 위해 A 토지를 경작하려는 경쟁이 일어나고, 추가소득 1만원이 결국 지대가 된다는군요. 그럼 ABC 토지 3개가 사용되어 C가 한계지가 되면 쌀 한가마니 당 가격이 8만원이 될 것이고. 그럼 A 토지의 추가소득은 3만원(8 - 5), B 토지의 추가소득은 2만원(8 - 6)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게 곧 지대죠.

2. [정답] : 그동안의 지대 상승은 곡물 가격 상승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 지대는 토지 생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이 아니라 토지 생산물의 가격이 오름으로써 얻게 되는 불로 소득에 불과하다.

- 처음부터 끝까지, ABC 토지 예시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후에 다른 예시, 다른 이론, 다른 개념이 나와도 앞에 나왔던 ABC 토지 예시를 활용하여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좋은 독해 습관 : 확장적 사고, 앞에 나온 예시를 뒤에 나온 지문 내용 이해에까지 적극 활용하기)

-> 지문 아래 갑국의 상황은 그러니까, A만 쓰다가 곡물 수입 못해서 자체 생산하다보니 B도 쓰게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곡물가격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 것이고, A에 지대가 1만원 형성된 것이겠죠. 여기서 다시 곡물 수입을 재개하면, 곡물가격은 5만원으로 떨어질 것이고, 1만원으로 형성되었던 지대가 없어지겠죠. 즉, 지주들이 벌던 1만원 지대만 없어지겠네요. 불로소득인 지대가 생겼다가 사라지니까 지주만 피해보겠죠.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27 문학

진위판단, 숲과 나무

[지문]

서쪽으로 낸 대나무로 엮은 창 돌아들어, 동쪽에 있는 소나무로 만든 댓돌에 다다르니, 북쪽 창에 밝게 쬐 등불 하나만이 외로이 섰는데, 밤은 깊은 삼경이라. 높은 담 구멍 찾아가서 방자 먼저 기어들며,

“쉬, 나리 잘못하다가는 일 날 것이니, 두 발을 한데 모아 요령 있게 들이미시오.”

배비장이 방자 말을 옹골 듣고 두 발을 모아 들이민다. 방자 놈이 안에서 배비장의 두 발목을 모아 쥐고 힘껏 잡아당기니, 부른 배가 딱 걸려서 들도 나도 아니하는구나. 배비장 두 눈을 희게 뜨고 이를 갈며

“좀 놓아다고!”

하면서, 죽어도 문자는 쓰던 것이었다.

“포복불입하니 출분이기사로다.”

방자가 안에서 웃으며 탁 놓으니, 배비장이 곤두박질하였다가 일어나 앉으며 하는 말이,

“매사가 순리로 아니 되니 큰 낭패로다. 산모의 해산법으로 말하여도 아이를 머리부터 낳아야 순산이라 하니, 내 상투를 들이밀 것이니 잘 잡아당겨라.”

방자놈이 배비장의 상투를 노퍽거지 쓴 채 왈각 잡아당기나, 아무리 하여도 나온 줄 모르겠다.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으니, 목숨은 원래 하늘에 달렸음이라. 뺨 하고 들어가니 배비장이 아프단 말도 못 하고,

“어허, 아마도 내 등에는 끈질끈자판*을 놓았나 보다.”

- 작자 미상, [배비장전]

*끈질끈자판 : 고누판. '고누'는 장기와 비슷한 옛날의 놀이.

[문제] 진위판단

1. 밑줄은 방자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배비장의 모습이 나타나있다.

정답 : (참 / 거짓)

※ 2018년 고1 3월 모의고사 42 ~ 45번 문학 지문 참조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27 문학

정답 및 해설

1. [정답] : 거짓

- 방자가 배비장을 잡아당겼고, 배비장이 아픈데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자기 등에 장기판이 놓여 있다는 뉘 말인지는 모를 수 있으나 어찌되었든(나무) 아픈 걸 참는 듯한 소리를 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방자 때문에 아팠으니 배비장은 방자에 대해 불만을 가질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방자는 배비장이 구멍을 통과하도록 도와주는 상황(숲)**이니까요.

+ **나무 종류가 무엇인지가 바로 안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숲이라는 것은 아셔야 합니다.(숲과 나무, 현실적 풀이)** 밑줄은 배비장이 자신의 등에 장기판이 붙어 있다 보니, 그만큼 몸통이 커져서 구멍을 통과하지 못한 거라고 변명하는, 머쓱해하고 뻔뻔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 해석이 막힘없이 떠올랐으면 좋겠지만, 시험 현장에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장면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문제는 맞힐 수 있습니다. **지문을 읽을 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면,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시되, 안되면 정황 상 이런 의미일 것이라고 추론해보는 습관을 들입니다. (현실적 풀이 사고)**

++ 심지어, '노골적으로'라는 선택지 표현이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생각이라도 일단 정답을 맞히긴 하셨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표현해야 대한민국 남녀노소 70%가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에 동의해줄 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너 때문에 아프잖아 (ㅆㅆ)'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위 표현은 냅다 욕을 한 수준이고, 이 정도보다는 좀 덜할지라도, 직접적인 불만의 표현이 나와야 노골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계속 문제를 풀고, 틀리고 하면서 '아 이 정도는 노골적인 것까지는 아니구나. 알아두자'라고 생각하며 본인의 사고를 조정하고 사회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회화 과정을 수능 날까지 수십 번 거치다 보면, 수능에서만큼은 절대 틀릴 일이 없게 될 겁니다.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28 문법

쪼개서 원형파악

[지문]

어떤 말을 둘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진 두 요소 각각을 직접구성요소라 한다. 직접구성요소가 어근과 어근으로 나누어지는 말은 합성어이고, 어근과 접사로 나누어지는 말은 파생어이다.

- 뒤집어봤다
- 뒤돌아봤다

[문제] 진위판단

1. 다음 중 어간이 3개 이상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합성어는 무엇인지 찾으시오.

- 정답 : (뒤집어봤다 / 뒤돌아봤다)
-

※ 2018년 고2 3월 모의고사 12번 문법 지문 참조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28 문법

정답 및 해설

[정답] : 뒤돌아봤다

★ 좋은 문제 풀이 습관은 '보다'의 의미가 look, see(눈으로 보는)로 살아있으면서 중심적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try(시험 삼아 해보는)로 쓰였는지를 떠올려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2개의 요소로 쪼개는 직접구성요소 분석의 시작입니다.

+ 명사 '뒤' : back, behind vs 접두사 '뒤' : opposite 반대로, turnover 뒤집어

뒤집어/보았다 = 뒤집어 + 보았다

: back(뒤)+see(보다)의 의미로 쓰이지 않고, opposite(반대로)와 try(시험 삼아)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뒤집어보다'가 등재되어 있지 않고, '뒤집다' '보다'만이 따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본용언(뒤집어) + 보조용언(보았다) 구성 2개의 직접구성요소로 쪼개야 합니다.

- 뒤집- : 접두사 '뒤' + 동사 어간 '집' 2개 구성요소로 본용언의 어간 구성

- 어 : 보조적 연결어미

- 보- : (see가 아닌) try의 의미로 쓰인 '보조동사'의 어간

- -았- :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 -다 : 어말어미

* 맥락상 뒤집어본 후에 진짜로 'look'하는 게 확실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랬다면, 본용언+본용언 구성이므로 '뒤집어V보았다'로 띄어쓰기 하셔야 합니다.

뒤돌아보/았다 = 뒤돌아보- + 았다

: see의 의미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보다'가 중심적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뒤돌아보다'라는 동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어간(뒤돌아보-) + 어미(-았다) 2개의 직접구성요소로 쪼개야 합니다.

- 뒤돌아보-(어간) : 뒤돌아보-'가 통사적 합성동사의 어간입니다. 명사 '뒤' + 용언 어간 '돌-' + 대등적 연결어미 '아' + 용언 어간 '보-'. 4개 구성요소로 어간 구성

- -았- :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 -다 : 어말어미

★ 어근과 어간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문에서 합성어와 파생어에 관해 설명했다고 해서 출제요소가 어근이겠거니 넘겨짚고 대충 풀면 틀립니다. (좋은 독해 습관 : '겉으로 보이는 출제요소' vs '속에 있는 출제요소'를 엄밀히 구분하기)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29 멘토링

사자성어 정리

[지문]

1. 중과부적(衆寡不敵)
2. 고장난명(孤掌難鳴)
3. 감개무량(感慨無量)
4. 면종복배(面從腹背)

[문제]

- 다음 사자성어들의 뜻을 스스로에게 설명해보세요. 막힘없이 떠올랐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사자성어 참 힘들죠. 이게 사전에 나온 의역만 무자성으로 외우려다보니 잘 안 와 닿기도 하고, 한번 외워도 좀만 지나면 까먹어서 답답할 겁니다. 제가 꿀팁 하나 드리자면, 의역된 걸 한번 보신 후에 '한자 뜻'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한자 뜻들을 '조합'해서 스스로 직역을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역을 다시 읽어보며 본인이 해본 직역을 좀 수정해두면 평생 안 까먹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외운지도 벌써 10년 전인데요. 의역이나 한자는 좀 헛갈려도 직역만큼은 다 기억나니 참 신기합니다. 결국 내 스스로 해낸 것만이 오롯이 내 것인가 봅니다.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29 멘토링

정답 및 해설

1. 중과부적(衆寡不敵)

- = 의역 : 적은 수효로 많은 수효를 대적하지 못함.
- 한자 : 무리 중, 적을 과, 아니다 부, 대적하다 적
- + 직역 : 무리가 적으니 (많은 적에) 대적하기 힘들다

2. 고장난명(孤掌難鳴)

- = 의역 : 혼자 힘만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어려움
- 한자 : 외로울 고, 손바닥 장, 어려울 난, 울다 명
- + 직역 : 외로운 손바닥은 (소리가) 울리기 어렵다

3. 감개무량(感慨無量)

- = 의역 : 마음속에서 느끼는 감동이나 느낌이 끝이 없음. 또는 그 감동이나 느낌.
- 한자 : 느끼다 감, 슬퍼할 개, 없을 무, 헤아릴 량
- + 직역 : 슬퍼함을 느끼는 게 헤아릴 수가 없다

4. 면중복배(面從腹背)

- = 의역 :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내심으로는 배반함.
- 얼굴 면, 좇다 중, 배 복, 배반하다 배
- + 직역 : 얼굴로는 따른다고 하더니, 배(마음)로는 배반하려고 함

★ 한자 뜻까지 보는 게 더 귀찮고 어색하다구요? 처음이야 의역보고, 한자 뜻 보고, 조합도 해본다고, 그냥 무차성으로 외우는 것보다 할 게 많아서 짜증이 나겠죠. 그래도 이렇게 좀만 외워두면, 슬슬 아는 한자들도 많이 보여서 더 편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요. 한번 이렇게 외워둔 건 잘 까먹지 않습니다. 100개 대충 외우고 나중에 또 까먹어서 또 문제 틀리고 다시 외울 건가요? 언제까지요? 아님 시간 좀 들여서 외운 후 평생 안 까먹어서 나중에 멋있는 체 좀 하실래요? 대학에서 교수님들이요. 어려운 질문은 학생들이 힘들어할까봐 못하시고, 그나마 쉬운 사자성어 뜻 뭐냐고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한자 뜻을 곁들여 직역한 본인만의 표현으로 답해보세요. 교수님이 진짜 좋게 봐주십니다. **공부를 제대로 할 줄 아는 학생이라는 걸 이 대답 하나로도 증명해보일 수 있거든요.**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30 비문학

진위판단, 절대적vs상대적, 겸손함vs오만방자

[지문]

조사 결과 1인 방송 콘텐츠의 조회 수가 많아질수록 제작자의 수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1인 방송 제작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1인 방송을 할 때 막말 등을 섞어서 자극적인 콘텐츠로 방송했더니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조회 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이처럼 1인 방송 제작자들은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려는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

[문제]

1. 자극적인 1인 방송 콘텐츠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조회 수가 제작자의 이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 정답 : (참 / 거짓)
 2. 1인 방송 규제 강화 이유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즐기는 시청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정답 : (참 / 거짓)
 3. 1인 방송에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1인 방송 시청자수가 늘어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정답 : (참 / 거짓)
 4. 1인 방송에 시청자의 관심이 집중되게 하려면 자극적인 콘텐츠를 다수 포함해야 한다.
- 정답 : (참 / 거짓)
-

※ 2019년 고1 3월 모의고사 9 ~ 10번 작문 지문 참조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30 비문학

정답 및 해설

1. [정답] : (정답의 확신성이 낮게) 참

- 조회 수가 제작자의 이익으로 이어진다(선택지) = 조회 수가 많아질수록 제작자의 수익이 증가(지문)
- 자극적인 1인 방송 콘텐츠 증가(선택지) =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려는 유혹을 느낄 수밖에(지문)
- 선택지-지문 동어반복이 될뿐더러, '이유 중 하나'라는 겸손한 표현까지 썼으므로 참입니다. 사실 인터뷰 내용은, 고작 1인 방송 제작자 1명의 경험에서 나온 의견일 뿐입니다. 돈이 된다면, 조회 수 늘리겠다고, 자극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지는 않는 1인 방송인분들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만약 선택지 표현이 '이유 중 하나는'(상대적 표현)이 아니라 그냥 '이유는'(절대적 표현)이었다면 이 진술은 정답의 확신성이 낮게, 거짓인 진술이 될 겁니다. 단정적이고 절대적인 표현이 아닌 겸손하고 상대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정답의 확신성은 떨어지더라도 참이라고 선택하셨기를 바랍니다.

2. [정답] : (정답의 확신성이 높게) 거짓

- '규제 강화'에 대한 진술 자체가 지문에 없습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선택지-지문 동어반복이 안되므로 거짓입니다.
- 시청자들이 '크게' 증가했는지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증가했을 수는 있겠죠, 조회 수가 늘어났다니까요. 그러나 '크게' 증가했는지는 또 모를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증가했을 수 있다'였다면 또 모르겠지만요.

3. [정답] : (정답의 확신성이 낮게) 참

- '될 수 있다.'라는 매우 겸손한 표현을 썼기 때문에 참인 선지입니다.
- 진술 내용 자체가 '나쁜 짓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구조다 보니, 참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분명히 불편하고 찝찝한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감정이 들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그래도 참이 되는 근거인 '될 수 있다'를 가지고 판단하셨기를 바랍니다.

4. [정답] : (정답의 확신성이 낮게) 거짓

- 자극적인 콘텐츠 다수 포함(선택지) = 자극적인 콘텐츠로 방송(지문)
- 시청자의 관심이 집중(선택지) = 조회 수가 크게 늘어났다(지문)
- '선택지-지문 동어반복'이 잘 된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해야 한다.'라는 오만방자한 표현, 단정적 표현으로 인해 거짓입니다. 또한 시청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가 자극적이어서 하나뿐일 리가 없죠. 조회 수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자극적인 것 말고도 다양한 이유들(트렌드, 유머, 디테일, 광고 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제쳐두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포함'해야만' 한다고 말하니 참 오만방자합니다.

#31 문학

동어반복, 숲과 나무

[보기]

지도는 영토와 국경의 존재를 드러내고 육지와 바다, 국가와 국가 간의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신석정의 [지도]는 '지도', '지구'와 같은 지리적 표상을 다루고 구체적 장소를 제시하면서 이를 1930년대 제국주의 치하의 현실과 연결하고 있다. 시의 화자는 지도를 보며 민족 공동체의 차원에서 일제의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 의식을, 세계 공동체의 차원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인류 평화에 대한 소망을 드러낸다.

[지문]

1 지도에서는 푸른 것을 바다라 하였고
얼룩덜룩한 것을 육지라 부르는
습관을 길러 왔단다.

2 이제까지 국경이 있어 본 일이 없다는
저 하늘을 닮아서 바다는 한결로 푸르고

3 육지가 석류껍질처럼 울긋불긋한 것은
오로지 색채를 즐긴다는 단조한 이유가 아니란다.

4 오늘 펴보는 이 지도에는
조선과 인도가 왜 이리 많으냐?

5 시방 나는
똥그란 지구가 유성처럼 화려히 떨어져 갈 날을
생각하는 '외로움'이 있다.

6 도시 지구는 한 덩이 푸른 석류였거니…….

- 신석정, [지도]

*도시 : 이러니저러니 할 것 없이 아주

[문제] 진위판단, 주관식

1. 조선과 인도는 제국주의 국가를 의미한다.

정답 : (참 / 거짓)

2. '똥그란 지구'가 유성처럼 화려히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정답 :

3. 시적화자가 외로운 이유는 무엇일까?

정답 :

#31 문학

정답 및 해설

1. 정답 : 거짓,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라 식민지
2. 정답 : 지구가 한 덩이(6연)였으나, 유성처럼 떨어져 버린다고 하니, 지구 멸망을 의미
3. 정답 : 지구 걱정을 화자 자기만 하는 것 같다고 느껴서

현장독해

[본문]

지도에서는 푸른 것을 바다라 하였고
 얼룩덜룩한 것을 육지라 부르는
 습관을 길러 왔단다.

이제까지 국경이 있어 본 일이 없다는
 저 하늘을 닮아서 바다는 한결로 푸르고

육지가 석류껍질처럼 울긋불긋한 것은
 오로지 색채를 즐긴다는 단조한 이유가 아니란다.

오늘 펴보는 이 지도에는
 조선과 인도가 왜 이리 많으냐?

시방 나는
 똥그란 지구가 유성처럼 화려히 떨어져 갈 날을
 생각하는 '외로움'이 있다.

도시 지구는 한 덩이 푸른 석류였거니.....
 - 신석정, [지도]
 *도시 : 이러니저러니 할 것 없이 아주

[해설]

-> 1연 : 바다랑 육지 구분한다고 하네.

-> 2연 : 바다 = 하늘 = 푸름 = 국경 없음(지문-지문 동어반복->그룹 묶기)

-> 3연 : 그 이유는 바로 국경 없는 바다와 달리, 육지는 국경이 있기 때문. 바다=제국주의 없음 vs 육지=제국주의 있음(동어반복->GROUPing-> 비교)

-> 4연 : 조선과 인도는 식민지. 식민지가 너무 많은 비판적 인식을 설의적으로 표현.

-> 5연 : '지구가 떨어져 나가는거면... 그냥 다 죽는거잖아?' 오징어게임 "제발... 그만해...! 이러다간 다 죽어!!!!"이거네. 근데 이런 지구 걱정을 화자인 나만 하는 것 같아서 외롭다는거네.

-> 6연 : 지구=푸름=국경 없음. 원래 지구는 국경이 없었다. 세계 공동체 차원에서 인류 평화에 대해 소망.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32 문법

쪼개서 원형파악

[지문]

1. 눈웃음
2. 비웃음
3. 꺾쇠
4. 따로국밥

[문제] 쪼개서 원형파악

- 위 단어들을 품사·형태소 단위, 어근·접사 등 본인의 모든 문법지식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디테일하게 쪼개서 원형파악해보시고, 단일어인지 파생어인지 통사적 합성어인지 비통사적 합성어인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2023학년도 수능국어 언어와 매체 영역의 문법 출제경향을 생각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디테일한 '쪼개서 원형파악'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제요소와 관련된 문법 용어들이 막힘없이 떠오를 정도로 암기하고, 문법 개념어를 활용한 쪼개서 원형파악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문학' '문학' '매체' 영역에서는 다를 수 있으나, '문법' 영역에서만큼은 사고력뿐 아니라 '암기력'까지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정확하면서도 '막힘없이' 풀 수 있습니다. 문법 영역을 다 맞추는 건 당연한 것이나, 막힘없이 다 맞추어야만 고난도 비문학 영역에서 '사고력'을 발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32 문법

정답 및 해설

[정답]

1. **눈/웃음** : 통사적 합성명사 { 어근 + 어근(파생명사) }
 - 눈 : 명사 '눈'
 - 웃음 : 동사 '웃다'의 어간 '웃-' + 명사파생접미사 '음'이 붙은 파생명사
2. **비웃음** : 파생명사 { 어근(파생동사) + 접미사 }
 - 비웃- : 접두사 '비-' + 동사 '웃다'의 어간 '웃-'이 붙어 만들어진 파생동사
 - -음 : 명사파생접미사 '음'
3. **꺾/쇠** : 비통사적 합성명사 (용언의 어간+체언)
 - 꺾- : 동사 꺾다의 어간 '꺾-'
 - (은) :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 생략
 - 쇠 : 명사 '쇠'
4. **따로/국밥** : 비통사적 합성명사 (부사+체언)
 - 따로 : 부사
 - 국밥 : 명사 '국'과 명사 '밥'의 합성명사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33 문학

사자성어 정리

[지문]

1. 절치부심(切齒腐心)
2. 교각살우(矯角殺牛)
3. 곡학아세(曲學阿世)
4. 염량세태(炎涼世態)
5. 좌불안석(坐不安席)

[문제]

- 다음 사자성어들의 뜻을 스스로에게 설명해보세요. 막힘없이 떠올랐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33 문학

정답 및 해설

1. 절치부심(切齒腐心)

- = 의역 :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
- 한자 : 끊을 절, 이 치, 썩을 부, 마음 심
- + 직역 : 이가 끊어질 정도로 아득바득 갈면서 마음이 썩어문드러지게 하는

2. 교각살우(矯角殺牛)

- = 의역 : 잘못된 점을 고치려다가 그 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쳐 오히려 일을 그르침을 이르는
- 한자 : 바로잡을 교, 뿔 각, 죽이다 살, 소 우
- + 직역 :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여버리는

3. 곡학아세(曲學阿世)

- = 의역 : 바른길에서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 사람에게 아첨함
- 한자 : 굽을 곡, 배우다 학, 아첨하다 아, 세상 세
- + 직역 : 배운 것을 굽히고 세상에 아첨하다

4. 염량세태(炎涼世態)

- = 의역 : 세력이 있을 때는 아첨하여 따르고 세력이 없으면 푸대접하는 세상인심을 비유
- 한자 : 불꽃 염, 서늘하다 량, 세상 세, 모양 태
- + 직역 : 불꽃처럼 뜨겁다가도 서늘한 것이 세상 모습이다

5. 좌불안석(坐不安席)

- = 의역 : 마음이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워서 한군데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못하는 모양
- 한자 : 앉다 좌, 아니다 불, 편안하다 안, 자리 석
- + 직역 : 앉아도 자리가 편하지가 않다

★ 신기하게도, '1% 1등급' 학생들은 학년 상관없이, 막힘없이, 자기만의 표현으로 뜻을 설명해냅니다. 근데 그 아래 등급 학생들은 그저 '모름되 죄송함되' 이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꼭 '아 이거 저번에 외웠던 건데~' '한자는 너무 어려운데요' '이건 어차피 요즘 수능에는 안나오는데여~' 이딴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한심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말을 내뱉고 있는지, 그래서 남들에게 속으로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이미 한두 번 배운 걸 또 못해내는 자기자신을 부끄러워하십시오. 그 부끄러움을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아 독하게 배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가는 국어

#0 나가기 전에

제작 방향성

문제나 풀자

저는 독해법·풀이법·학습법·멘토링 등을 칼럼 형식으로 구구절절이 설명하는 것에 이젠 지쳐 버렸습니다. 좋은 독해 습관, 좋은 풀이 습관들을 글로 설명만 해서는, 아무리 쉽고 재밌게 얘기하더라도 한계가 있더군요. 자신의 안 좋은 습관은 고치고, 좋은 방법들은 최대한 많이 자기 습관으로 만드는 그 실질적 행동 방법. 그것을 설명만으로 가르치기는 힘들었습니다. 제가 여전히 많이 부족한가봅니다. 그래서 전, 실전 지향적인 실질적 액션 플랜을 제시하는데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수많은 국어 고수들의 그렇게 잘나고 멋들어진 풀이를, 결국 학생 스스로가 시험 순간에 해낼 수 있게 만드는, 그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이 자료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전, 좋은 방법들을 그저 설명만 하고 있을 시간에, 학생들이 한 문제라도 더 풀게 하고자 했습니다. 지나가다 우연히 한 문제를 푸는 학생조차도, '좋은 자극, 좋은 긴장감'을 얻을 수 있도록 문제를 엄선하고 해설을 쓰고 있습니다. 최고난도·최다오답 문제뿐만 아니라, 공부 잘한다는 학생들도 가끔씩 실수하는 문제, 누구나 한번쯤은 틀려가며 배우는 문제, 좋은 습관대로 푸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문제 등을 엄선하고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문제를 풀다가 틀리고 막혀서, 독이 바짝 오른 상태에서 해설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좋은 독해법·풀이법·학습법·멘토링을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학생들에게도, 제게도, 시간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더 나으리라 믿습니다.

도전하여 내 것으로 만들자

이 자료의 문제들은, 국어 기초 개념, 즉 '고전 어휘·독해법'과 '문법 개념' 등을 1회독 한 학생. 윤혜정 선생님의 [개념의 나비효과], 이해황 선생님의 [국어의 기술]과 같은 기초 개념서를 1회독 이상 한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도전은 가능한 것들입니다. 저는 수업 설명회에서도 학생·학부모님들과 이 문제들을 함께 풀니다. 수업 커리큘럼·계획서·분석 자료를 그럴듯하게 발표하는 것만큼이나, 눈앞에서 지문을 읽고 문제 푸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더 큰 공감을 얻더군요. 중학생·고1·고2·고3·N수·학부모 등의 틀에 스스로를 가두어, 이 자료는 내가 풀 게 아니라고 편견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다 맞힐 수 있는 실력을 갖추자는 마인드로, 해당 자료의 문제들을 다 맞히고 막힘없이 설명해내는 것에 도전해 보세요.

스스로 설명해보자

활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문제 풀고 해설 읽는 거죠 뭐. 다만, 남들보다 질적으로 높게 이 자료를 활용하여 경쟁에서 이기고자 한다면, 스스로에게 설명해보는데 집중하세요. 스스로에게 정답과 근거를 설명해본 후 해설과 비교해보세요. 하루하루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어느 새 자신의 안 좋은 습관은 안하게 되고, 좋은 습관은 해내게 될 겁니다.

굳이 이 자료를 복습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을 갖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보다는, 여기서 알게 된 좋은 습관들과 방법들을 평소 국어 문제 풀면서 적용해보려고 하세요. 또는 몇 달 혹은 1년 후에, 똑같은 문제를 스스로에게 다시 설명해보면서 자신이 성장했는지를 점검해보셔도 좋겠구요.

물론, 해설에서 공감 가는 부분, 스스로 잘 안됐던 부분은 시간차를 두고 몇 번이고 다시 해보시면 더욱 좋기야 하겠지요. 반복의 지루함을 인내하고 복습하는 자가 결국 인생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기에 어색했던 걸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처럼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반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지루하다고 복습 잘 못하거든요. 복습만 잘 해도 대한민국 90%는 이길 수 있습니다.

색다르게 해보자

일반적인 국어 문제들을 풀다 지쳐 토할 것 같을 때, 공부하기는 너무 싫는데 그래도 뭔가는 해야 마음이 편할 때, 그럴 때마다 가끔씩 들춰보고 또 몇 문제 풀어 보세요. 문제도 유형도 영역도 형식도 평소 풀던 것들과는 좀 다르겠지만, 인생에 걸쳐서 도움이 될 좋은 독해 습관과 좋은 풀이 습관을 얻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 벌을 받더라